



· 목 차 ·

- 2 포커스  
불임, 더 이상 고민할 필요 없다
- 3 신인재 칼럼  
여유(餘裕)의 미학
- 4 나의 연구 나의 테마  
증양의 성장은  
혈관 신생에 좌우된다
- 5 사랑의 스티커  
사랑은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고
- 6~7 돌이보는 의료원 10년(6)  
아주대학교병원 위치 선정 및  
건축공사에 얽힌 이야기(1)
- 8~9 진료교실 1  
우리 아이 '질병' 방학 때 고쳐요
- 10 유명인과 질병  
말더듬이, 윈스턴 처칠
- 11 내가 꿈꾸는 의료인  
절망적인 상황에서 얻은  
소중한 경험
- 12 잊을 수 없는 환자  
'다시 설 수 있을까요?'
- 13 우리 병원 여덟살짜  
행복했던 아주대병원에서의 3개월
- 14~18 AMC NEWS
- 19 장기기증은 사랑입니다!  
간이식 주저하지 마세요
- 20 진료교실 2  
여름철 우리 아이 괴롭히는  
'피부질환!'
- 21 의료장비  
아주대병원, 신형  
지방흡입기 2대 도입
- 22~23 건강 Q&A  
- 녹내장  
- 전립선 결석, 만성 전립선염
- 24~25 병뚜껑 열리  
'환자 한명 한명이 존중받는  
병동 만들기'에 앞장섭니다
- 26 나의 건강상식은?  
소변도 잘 봐야 건강하다
- 27 협력병원 탐방 동수원남양병원
- 28 의료원발전 후원내역
- 30 개사면
- 31 전문시간표

## 아주대의료원이 희생과 봉사를 실천합니다



아주대학교의료원이 개원 10주년을 맞아 「사회에 봉사하고, 희생하는 의료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적극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의료원은 개원 10주년을 맞아 개원 이후 「무의촌지역 의료봉사», 「수해·재난지역 의료봉사», 「해외 의료봉사활동」 등 주로 「의료봉사」 중심의 봉사활동에서 더 나아가 아주대의료원 교직원 모두가 보다 다양한 분야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폭넓은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해 가고 있습니다.

아주대학교의료원은 지난 4월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실시중인 외국인 근로자 무료진료와 수원시 노인정 무료 이동진료에 임상각과 의사, 간호사, 약사, 기사, 사회사업사, 행정직원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영화동호회, 인라인 스케이트 동호회 등의 동호회들도 정기적인 활동모임에 지역사회 보호시설에 있는 취학전 아동·청소년들을 참여시켜 더불어 사는 세상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영양팀의 「밑반찬 나누기」 봉사활동, 바자회, 장애우 초청 불링대회 등 사회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우리의 이웃을 아주대학교의료원이 직접 찾아가고 있습니다.

개원 10주년을 맞는 아주대학교의료원이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의료원», 「사회에 봉사하고, 희생하는 의료원」으로 거듭나는 모습을 사랑과 격려로 지켜봐 주십시오.





## 불임, 더 이상 고민할 필요없다



**아**주대학교병원 불임 및 습관성 유산클리닉(황경주, 김미란, 서성석 교수, 홍순정, 박동욱 연구원, 김옥경 전문간호사)이 1994년 개원 이후 2004년 현재까지 약 10년간의 불임시술 건수를 발표했다.

불임 및 습관성 유산클리닉에 따르면, 1994년 6월부터 2004년 2월까지 「불임시술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시험관아기 시술 2,100여건, 자궁내 인공수정 1,557건을 시행한 결과, 시험관아기의 경우 776례(36.9%)에서 임신되었으며(이중 냉동배아 이식에 의한 임신 124건 포함), 자궁내 인공수정은 189례(11.9%)에서 임신되었다고 밝혔다.

이 수치는 배란일을 맞추는 시술은 제외한 것이며, 이 외에도 불임 및 습관성 유산클리닉은 지난 10년간 정밀정자검사 1,462건, 면역주검사 3,294건, 임파구를 이용한 자가면역치료 462건, 배아은행 431건, 정자은행 114건, 다태임신에서 선택적유산술 99건의 시술을 시행하였다.

불임 및 습관성 유산클리닉을 주도하고 있는 황경주 교수는 『지난 10년간 이런 이러한 성과는 국내 및 세계 여러 불임전문병원들이 발표하는 임신 성공률 약 30%, 출산 성공률 약 25%와 견주어 대등한 성적』이라고 말했다.

또한, 황경주 교수는 『지난 10년간 우수한 의료진을 확보하고,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현재 아주대학교병원이 위치한 수도권은 물론 경기이남, 충청도, 전라도 및 제주도에서까지 환자들이 찾고 있는 등 폭넓게 환자층을 확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공해, 환경호르몬, 스트레스, 비만 등으로 불임이 급증하고 있지만, 불임치료법 또한 급격한 발전을 보여 혹자는 「이제 더 이상의 불임은 없다」라고 공헌할 정도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불임치료술은 세계적 수준으로 불임을 부끄럽고 숨겨할 질병이 아닌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질환으로 인식되고 있다.

아주대학교병원 불임 및 습관성 유산클리닉은 94년 11월 클리닉을 오픈하여 난자내 정자 미세주입술 시술 성공, 세계 최초로 수정란이 착상되는 인공자궁 초기기술 개발, 자궁내막증 환자의 불임 원인으로 자궁내막폴립 규명, 5% 탄산가스 세포배양기 및 세포동결기를 국내 최초로 개발하여 임상에 도입, 저용량 아스피린과 스테로이드 병행치료로 임신율 향상, 자궁내 폴립 자궁내막증 동반 확인 등 꾸준한 연구성과와 임상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 여유(餘裕)의 미학

새로 이사한 아파트 베란다에 한 뼘 남짓 조그만 공간에 텃밭을 일구었다. 텃밭이라고 부르기에는 어색한 감이 없지 않지만 나만을 위한 여유의 공간이기에 이름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메마른 화색 공간에 싱그러움을 주고 습도를 조절하는데 매우 유용할 것이라는 나름대로의 개똥철학을 가지고 거금(?)을 들여 잔디를 심었다. 거름도 주고 규칙적으로 물을 주니 잘 자라 어느덧 파란 용단을 깔아 놓은 듯 하였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잔디는 생명의 끈을 놓기 시작하였다. 잔디의 생장에 가장 중요한 햇빛이 부족하다는 것을, 혹은 유리를 통과한 변질된 햇빛이 잔디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

늦여름과 가을의 정취는 목이 긴 줄기 위에 달려있는 셋노란 꽃잎의 해바라기와 산들바람에 하늘거리는 귀여운 코스모스가 제격이 아닌가? 지난해의 실수를 만회해야 한다는 강박관념과 이번에는 실수를 하지 않겠다는 도전 정신으로 다시 한번 텃밭에 씨를 뿌렸다. 좁쌀보다 작은 까만 코스모스 씨와 햄스터가 먹다 남은 해바라기 씨를. 빨리 자라게 해서 이~쁜 꽃을 피워 보이겠다는 욕심으로 틈틈이 물도 주는 등 온갖 정성을 다하였다. 싹이 트고 연녹색의 떡잎이 나올 때까지 「그러면 그렇지 이번에는 틀림없을 거야. ㅎㅎ」라고 내심 자만심으로 가득 찼다. 하지만 기대는 실망으로 끝났다. 두 녀석들은 마치 나의 성공이 가당찮다는 듯이 자라는 등 마는 등 하다가 이내 꽃망울을 맺으면서 보기에 민망할 정도로 작은 꽃(그림) 몇 송이만 달랑 피우다 사라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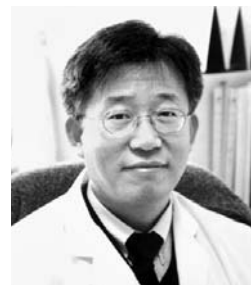


두 해에 걸쳐 내가 경험한 텃밭에서의 실수는 나의 무지와 조급함과 과욕 때문이다. 천지간(天地間) 물상들은 제각각 자기의 존재 영역이 있고 그 영역에 있을 때만 존재의 의미를 가진다. 일탈의 결과는 혼돈과 죽음뿐이다. 그 일탈은 과욕과 조급함에 기인한다. 비록 척박하고 구석져도 인간의 손패를 타지 않는 곳에서 자란 해바라기는 넓고 푸른 하늘을 향해 마음껏 팔 벌리고 서 있지 않은가? 시골길 가장자리에 다소곳이 핀 코스모스는 그 자체가 가을이다. 늦여름의 한가로움과 가을의 정취를 집안에서 두고 보겠다는 게으른 나의 욕심을 자연은 용납하지 않았다.

우리는 틈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틈나바퀴 속에서 신음하면서 살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아니라 그 속의 사람들과 그 사람들을 앞서야 한다는 경쟁심과 조급증이다. 남보다 좋은 학교에 들어가야 하고, 더 좋은 직업과 더 많은 물질을 소유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우리 스스로를 불행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한다. 적절한 경쟁심은 삶의 동력이 되겠지만 과도한 경쟁심은 너무 강한 에너지를 분출하여 자신을 소멸시킨다.

느림의 미학을 강조한 프랑스 사회철학자 피에르 상소(Pierre Sansot)의 저서 중에 길의 의미를 깊이 있게 다룬 부분이 있다. 자전거를 타면서 달리는 길은 자연을 같이 호흡할 수 있는 여유를 제공한다. 때로는 우정과 사랑과 추억을 그 길에서 만나게 된다. 하지만 고속도로는 목적지만을 연결하는 도로이다. 빨리 갈 수 있겠지만 한 번 출발하면 빠져 나갈 수 없는 막힌 길이다. 빠른 속도로 가면서도 늘 경쟁적으로 달려야 하는, 그래서 주위의 경치를 관망할 수 있는 여유를 허락하지 않는 길이다. 잠시의 방만은 오히려 대형사고를 불러 일으켜 나와 타인의 목숨을 잃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조급함과 과욕과 경쟁만으로 점철된 길보다 여유와 기다림, 동정, 용서, 헌신이 가득한 시골길을 걷도록 조언하고 있다.

이제는 나만을 위한 조그만 길로 가만히 걸어보자. 빨리 뛰지도 말고 남의 길을 넘보지도 말며, 야생화의 맑은 웃음소리와 컹컹을 간질이는 바람의 애무를 느껴보자. 그것이 삶의 행복이고 건강이다. 「오래 살고 싶으면 성급하게 굴지 말며 침착하고 온화하게 사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키케로(Cicero)의 말처럼.



주인수 주임교수 / 신경과학교실

선인(善仁)이란 노자 도덕경에서 인용한 말로 인을 잘 베푼다는 뜻이다. 의과대학 지하 카페테리아에 있는 선인재(善仁齋)란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인생을 논하고 즐기는 장소를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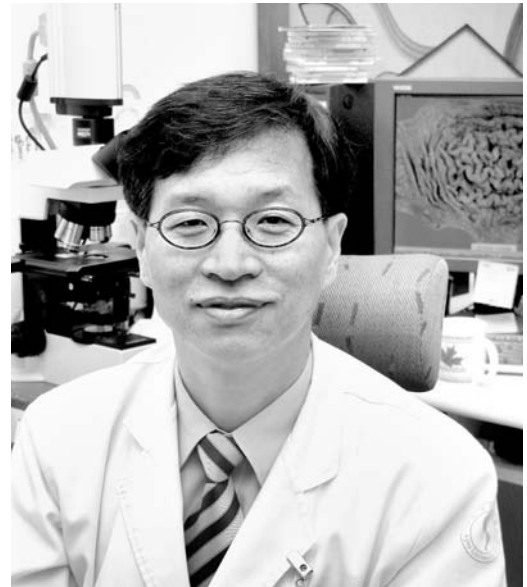
# 종양의 성장은 혈관 신생에 좌우된다

내가 전공하는 병리학은 의학에서는 소위 말하는 3D 업종으로 돈도 못벌고 개업도 못하는데다 의과대학생 시절 병리학에 대한 좋지 않은 추억이 많아서인지 인기가 별로 없는 과목이다. 일반인들도 병리학 (불과 얼마전까지만 해도 병원에서는 해부병리과라고 불렀다)에 대한 인식이 낮아 해부학이나 진단검사의학과(임상병리과)와 혼동하고 가끔은 경리과로 오해하기도 하므로 종종 부연 설명을 해야 하던 때가 있었는데 요사이 는 대중 포기하기로 했다.

병리학이란 형태학적 소견을 바탕으로 질병의 병인 기전과 질병의 진행 과정을 규명하여 정의하는 학문인데 이 점을 이용하여 임상적으로는 주로 조직검사를 통해 진단하는 분야이다. 다시 말해, 병리 의사는 환자의 임상적 증상 변화의 원인을 생검이나 수술로 절제된 조직이나 세포의 형태학적 소견을 통해 접근한다. 따라서 병리 의사에 의한 정확한 진단은 임상 의사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나아가 환자에게 효과적이고 적절한 치료를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병리학은 거의 모든 장기에서 발생하는 질환을 포함해야 하기 때문에 대단히 광범위하고 방대하여 많은 의과대학생들에게는 병리학에 대해 힘든 기억을 가지고 있는데, 유행가 가사에 「아픈 만큼 성숙해지고」라는 말이 있듯이 병리학을 거쳐감으로써 마치 울행이가 다리가 나와 개구리 형태로 성숙해지지 않나 생각해 본다.

지금도 시끄럽지만 우리가 의과대학을 다닐 때는 그야말로 격동의 시절이었다. 유신 말기 부미항쟁과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학교는 휴교하고 집에서 무료하게 놀던 시절에 아버지께서 사주신 현미경 한대가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 그 당시 학교에서 지급받은 조직학 실습용 슬라이드를 처음에는 심심해서 보다가 재미를 느껴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사실 의사라면 환자를 치료해야 한다는 고정 관념을 포기하는데는 내 자신의 갈등과 주위의 많은 반대를 극복해야만 했다. 오로지 한 길만 걸어 왔기에 비교할 만한 경험이 없어 그 당시의 선택이 적절했는지 아닌지 아직까지도 평가할 수는 없지만, 현 상황에서 병리과의 발전을 도모하는데는 여러 걸림돌이 많고 게다가 많은 의학도들이 병리학을 기피하는 최근의 걱정스러운 상황이 우울하기만 하다.

병리 전공의 시절 많은 종양 조직을 현미경으로 관찰하면서 종양의 종류에 따라 종양 조직내 존재하는 혈관 분포 양상이 각기 달라 종양의 형태학적 소견의 다양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에 관심이 있었다. 그것이 종양의 생물학적 특성을 좌우할 수도 있고 치료에도 응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한 것은 그로부터 몇 년후 잠시 병원 일에 자유로울 수



있었던 시기의 일이다. 종양에 있어 혈관은 군대로 비교하면 군수 물자 보급로의 구실을 하므로 종양세포는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 많은 혈관을 만들어 숙주로부터 필요로 하는 물질을 끌어들이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숙주에 나쁜 영향을 주게 된다.

1960년도부터 「종양의 성장은 혈관 신생에 좌우된다」라는 명제가 소수 과학자로부터 주장되어 왔으나 본격적으로 다양한 방법의 연구가 시도되기 시작한 때는 1990년대 초반부터이다. 그 전에는 종양 조직내 혈관의 형태학적 변화보다는 단순히 맨눈으로 새로 자라나는 혈관을 확인하기 위해 유정란(병이리가 부화되는 계란)의 유양막, 토끼의 각막이나 귀, 울행이 꼬리 등의 비교적 투명한 막에 혈관 신생을 유도하거나 억제하는 다소 엽기적인 방법을 썼다. 그러나 나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유정란의 유양막에 악성 종양을 이식 및 배양한 후 절제해서 슬라이드로 만든 다음 그 종양내 존재하는 혈관 양상이나 단위 면적 당 혈관의 수와 증식정도를 현미경으로 비교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상어연골 추출물이 종양의 억제 가능성을 확인하였는데 이 모델은 지금도 사용하면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불행히도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홀로 어렵게 정립한 방법들이 정교한 작업, 많은 시간과 정성이 필요한 일들이라 현재 여건상 시도하기가 어렵지만 패기있고 소신있는 많은 의학도들의 병리과 지원이 있을 때 다시 한 번 혈관 신생의 연구를 기대해 본다.

김 영 배 교수 / 병리학교실



# 사랑은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고



지난 7월21일, 선선한 저녁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한 오후 7시,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 마련되어 있는 인라인 스케이트장에서는 상기된 표정의 아이들이 어설플 몸짓으로 인라인 스케이트를 배우고 있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인라인 스케이트를 배우는 데에만 열중하고 있는 이 아이들은 바로, 아주대학교의료원 인라인 동호회가 스포츠 자원봉사활동을 시작한 청소년 사회복지시설인 효행원의 아이들이다.

아주대학교의료원 인라인 동호회는 지난해 9월 중부일보배 인라인대회에서 경품으로 받은 TV를 효행원에 기증하면서 효행원과 인연을 맺게 되었다. 당시 효행원의 아이들을 보며 무언가 이 아이들을 위해 좋은 일을 하고 싶다고 생각해 오던 동호회 회원들은 마침 의료원 10주년을 맞아 의료원에서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흐름에 맞춰 효행원 아이들과 주 1회 인라인 스케이트를 함께 타는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인라인 동호회 운영진인 진단방사선과 노성권 방사선사는 『회원들간의 의견 차이와 여러 가지 당면해 있는 현실적 문제로 봉사활동을 시작하기까지 여러 가지 걱정과 어려움이 많았다』고 하면서 『하지만 걱정과 달리 짝 흘러며 열심히 배우고 밝게 웃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니 봉사활동을 하길 잘 했다는 생각이 절로 든다』고 말한다.

첫 봉사활동이 무사히 끝나기는 했지만, 인라인 동호회 회원들의 표정이 밝지만은 않다. 아이들에게 인라인 스케이트가 있다는 사실만을 확인

하고, 시작한 봉사활동이었는데 막상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스케이트가 본격적으로 인라인을 배우고 타기에는 너무 부실했기 때문이다.

효행원 아이들보다 더 어린 다른 아이들은 발에 꼭 맞고, 성능도 좋은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고 있는데, 발에 맞지도 않고 성능도 좋지 않은 스케이트를 타고 있는 아이들이 혹시나 상처를 받지 않을지 걱정스웠다. 아이들이 조금씩 타는 법을 배우면 더 많은 기술을 배우고 싶어할 텐데, 그렇게 가르칠 수 없는 아이들의 신발에 시선을 뺄 수가 없었다.

인라인 동호회 의용공학팀 박승현(의용공학팀) 회장은 『아이들의 스케이트를 보는 순간 「아차」 싶었다. 스케이트가 있다는 말에, 의료원과 동호회의 지원을 받아 아이들의 보호대와 헬멧에만 신경을 써 마련했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인라인스케이트가 아이들이 즐기기에 부실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안타까운 마음 뿐이었다』고 밝혔다.

박승현 회장은 『흔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 때문에 조심스레 시작한 활동이지만 우려로 끝나 다행이다. 첫날 만나 인라인을 가르치면서 아이들이 흘리는 땀과 웃는 모습에 많은 위안이 되었고, 어떻게든 지원금을 마련하여 아이들의 스케이트를 바꿔주고 인라인대회에도 함께 나갈 수 있길 바라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들의 만남이 아이들에게 건강하고 아름다운 추억거리가 될 수 있길 바란다』며, 『매주 수요일에 만날 효행원 아이들이 벌써부터 그리워지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홍보팀 / 손미선〉



# 아주대학교병원 위치 선정 및 건축공사에 얽힌



그 래 신행정수도 이전 예정지를 놓고 의견들이 분분했듯이 아주대학교병원 위치 선정을 놓고도 부지 문제로 설왕설래하였다. 수원이 경기도 도청소재지이긴 하나 1980년대 말과 90년대 초에는 인구 60~70만의 작고 조용한 도시였다. 이런 도시에 대형 병원이 과연 필요한 것인지 당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이나 김효규 전 아주대학교총장은 몹시 부담스러워했던 것 같다. 하지만 우리 아주대학교병원은 경기도 지역 내에 개설해야 한다는 게 불변의 원칙인지라 수원외의 아주대학교에서 가까운 곳으로 부지를 선정하기로 했다. 그래서 처음에는 서초구 양재동 이남의 경기도 지역이나 과천 이남 지역을 염두에 두고 병원 부지를 물색하였는데, 마땅한 부지도 없었거니와 대형 병원이 필요로 하는 배후 도시가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다 몇몇 후보지 중 높지 않은 구릉을 끼고 있는 부지가 평촌지역에 매물로 나왔다. 간선도로에서 병원 부지까지 약 300~400미터 길이의 진입 도로가 있었으나, 그 주변에 민가들이 들어차 있어 도로 폭이 좁았다. 하지만 부지가 비교적 반듯하고 과천, 인양, 평촌 인근에서의 접근성도 좋아서 일차 병원 부지로 정하고 김효규 총장과 재단법인 대우학원의 황종익 이사가 구매 협상에 나섰다.

구매 단가에 따른 협상이고 보니 어느 정도 난관이 예상되긴 했으나 그 어려움은 참으로 고달픈 과정의 연속이었다. 어렵게 구매 단가를 합의하여 막상 계약을 하려고 하면 다시 턱없이 높은 가격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어렵게 구매 금액을 합의해서 그 사항을 김우중 회장실에 보고하고 결재를 받았는데, 결핍하면 그 액수에 변동이 생겨 회

장실의 결재 절차를 다시 밟아야 했으니 그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비상식적인 협상이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반복되어 김효규 총장께서는 김우중 회장에게 큰 부담을 느끼셨으리라 생각한다. 이렇게 일반 상식에도 어긋나는 협상이 계속되자 보다 못한 김우중 회장과 김효규 총장이 속의 끝에 아주대학교 캠퍼스 내에 오늘의 병원을 세우기로 결정하였다. 당시 김효규 총장께서 필자에게 전한 바에 의하면, 병원 부지를 대학 캠퍼스 내에 결정한 것은 김우중 회장의 아이디어였다고 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 아주대학교병원 부지가 결정되자 대우그룹 내의 (주)서울건축에서는 곧 설계 작업에 들어갔다. 그런데 병원 부지 곳곳에서 지질(地質) 검사를 하는 등 많은 진전을 보이는 가운데 예상치 않은 문제가 돌출하였다. 요즘 신행정수도 예정지 토지 투매 현상에서 생긴 신조어 「알박이땅」이 문제였다. 우리 병원 건설 부지 내에도 「사유 재산」인 조그마한 땅이 있었다. 다른 부지는 어렵사리 합의 구매를 하였는데 그 마지막 「조각땅」은 그야말로 불공불락(不攻不落)의 요지였다. 신생 아주대 의대 첫 졸업생들이 모교 병원에서 적어도 인턴 수련 과정을 밟을 수 있도록 병원 개원 일자를 정하고, 건축 공사를 서둘러야 하는 필자의 입장에서는 하루가 급했다. 그런데 몇 주일째 협상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으니 답답하고 초조하기 이를 데 없었다. 하는 수 없이 그 「조각땅」을 피해 병원 건물을 약 10여 미터 서쪽으로 옮겨 짓는 방안도 검토해 보았다. 그러나 설계자 측 설명에 의하면 설계 도면을 다시 그리려면 비용도 비용이려니와 시간도 약



# 이야기(1)



6주 정도가 걸린다고 하니 그야말로 이리지도 못하고 저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던 중 땅주인이 새로운 조건을 내놓아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했다. 그 조건이란 인사 청탁과 함께 병원이 개원되면 일정 기간 장례식장의 운영권을 달라는 것이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자 땅주인이 이번엔 병원 구내 매점 운영권을 달라고 요구했다. 우리는 가능한 한 작은 면적을 매점으로 할애하고, 개원 후 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권을 준다는 조건으로 협상을 마무리했다. 이러한 지겨운 줄다리기 협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성사시킨 분이 바로 재단의 황종의 상무이었다. 협상 과정에서 땅주인이 며칠씩 잠적해 버리는 등 온갖 형태의 고통을 감수하면서 끝까지 인내 하나로 문제를 해결한 황 상무의 노고가 새삼 떠오른다.

지금은 병원 앞에 6차선 도로가 시원스레 뚫려 있지만 원래 도시계획상에는 좁은 4차선 도로였고, 이마저도 본교 정문 앞 사거리 광장에서 병원 정문 방향으로 답장 끝 지점까지만 포장되어 있었다. 우리 병원이 개원하면 발생할 수 있는 교통 병목 현상과 환자가 우리 병원을 찾을 때 겪을 불편함을 해소해야 한다는 새로운 과제가 생긴 셈이다. 필자는 심재홍 당시 경기도 도지사를 찾아가 우리 병원 개원과 함께 생길 교통 혼잡과 환자들이 겪을 불편함을 지적하며 적절한 대책이 시급히 요망된다고 설명하였다. 다행히 검토해 보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 대책 또한 의외로 신속히 마련되었다. 그런데 병원 앞 도로의 폭을 현재처럼 6차선으로 확장하기 위해 병원

맞은편 아파트 경계선까지 바짝 도로를 넓히되 우리 대학교와 병원 부지의 남쪽 경계선도 약간은 포기해야 한다고 했다. 이때 실무적인 도움을 아끼지 않은 것은 학교 재단이었다.

하지만 병원의 개원 날짜가 다가오는데도 병원 앞 도로는 포장되지 않은 상태로 계속 남아 있었다. 알아보니 도로 포장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했다. 다시 심재홍 도지사님을 찾아뵙고 실상을 말씀드렸다. 때마침 경기도 의회 기간 중이라 추경예산에 반영시켜 개원 전에 도로를 말끔히 포장할 수 있었다.



이 성 낙 석좌교수 / 피부과학교실



# 우리 아이 「질병」 방학 때 고쳐요

방학은 학생들이 긴시간 치료해야 「질병」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시기이다.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이 평소 어떤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지는 않은지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다.

## 「우리 아이 너무 산만해요」

방학은 평소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를 보이는 아이들의 치료를 시작하기 좋은 시기이다. 주의력결핍은 부모가 생각하기에 머리가 나쁜 것 같지는 않는데 학업이 부진하거나 숙제를 제대로 못하는 경우, 학습이나 과제수행, 놀이 등에 오래 집중하지 못하거나 학용품을 자주 잃어버리는 경우, 외부의 사소한 자극에도 주의가 산만해지는 행동 등이다. 과잉행동장애는 가만히 앉아 있지 못하고 손발을 만지락 거리거나 몸을 뒤틀고, 가만히 앉아 있어야 하는 교실이나 공공장소에서 지나치게 뛰어다니

발견하여 안경이나 렌즈로 교정을 해주면 시력이 떨어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초기 증상이 없어 치료시기를 놓치기 쉬으므로 초등학교 취학 때까지 반드시 안과 검진을 받는 것이 좋다.

사시는 응급을 요하는 수술은 아니지만 방치할 경우 약시로 빠지는 것은 물론, 정서적으로 불안해져서 사회성을 키우는데 큰 장애가 될 수 있으므로 방학을 이용해 적절한 시기에 빨리 수술을 해 주는 것이 좋다.

또한, 방학은 근시로 대표되는 굴절이상을 교정할 수 있는 좋은 시기이다. 일반적으로 1년에 한번 정기적으로 시력검사를 하는 것이 좋으며,



거나 기어오르는 과잉행동,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대답하거나 차례를 기다리지 못하는 경우, 다른 사람이 하는 것에 대해 불쑥 끼어들어 참견하거나 방해하는 충동적 행동 등이다.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가 청소년 시기까지 지속되는 경우 도벽, 가출, 약물남용, 거짓말, 범법행위 등 행동장애로 나타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조기에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 가장 적절한 치료시기는 초등학교 입학직전이나 초등학교 1학년 시기이다. 치료는 약물치료, 치료프로그램 참여, 부모상담 등으로 치료결과가 매우 좋은 편이라 많은 부모들이 만족해 하며,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 어릴적 눈 관리 평생 눈 건강 좌우

눈에 구조적 이상이 없는데 시력이 정상보다 떨어지는 약시는 조기에

안경이나 렌즈를 착용하는 경우 성장기에는 6개월에 1번, 20세 이상은 시력측정 결과에 따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이외에도 속눈썹이 눈을 찔러 눈을 자주 비비고, 깜박일 수 있는데, 심하면 시력장애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필요하면 수술을 해야 한다. 흔하지는 않지만 성장기에도 녹내장, 백내장, 각막염으로 인한 혼탁, 포도막염 등의 안과질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안과 검진이 필요하다.

## 코, 귀, 목 질환 가볍다고 방치하면 큰 「화근」

방학 때가 되면 이비인후과는 축농증, 편도선염, 중이염 등의 치료를 받으려는 학생들로 장사진을 이룬다. 부비동염으로 불리는 축농증은 누런 코가 나오고, 코가 막히고, 냄새도 잘 못 맡고 답답하며, 심하면 코에



서 악취가 나고 두통이 동반되어 정신 집중을 할 수 없다. 대부분 수주간의 항생제 복용으로 치료

되지만 충분한 약물 치료에 반응이 없거나 합병증이 생긴 경우, 약물치료에 반응을 하지 않거나 약물 치료를 중단하면 계속 재발하는 경우, 물혹이 동반된 경우 등에는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수술은 병의 상태나 환자에 따라 전신 마취 혹은 부분 마취로 진행하며, 4~5일 정도의 입원 기간이 필요하다.

급성 편도염은 목의 통증, 고열, 입을 벌리거나 음식을 삼키지 못하며, 만성적인 상태가 되면 코골이 수면 중 무호흡, 코로 숨을 쉬지 못하고 항상 입을 벌리고 호흡을 하게 된다. 급성 편도염은 항생제를 비롯한 약물 치료나 가글, 수증기 흡입 등의 대증 치료를 하며 만성적이거나 재발성의 편도염인 경우, 편도 비대로 코골이나 수면 중 무호흡이 심하거나 코로 숨을 쉬지 못하고 구강 호흡을 하는 경우, 중이염이나 축농증이

는 정상 피부색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두달 이상의 회복기간이 필요하다. 점빠기는 탄산가스 레이저를 이용한다. 점세포의 깊이가 깊으면 흉터를 남기지 않기 위해 여러번으로 나누어 제거한다. 대개 두달 간격으로 2~3회 치료한다.

여드름 흉터는 레이저와 화학박피술을 병용하는데, 깊은 박피를 하게 되므로 두달 이상의 회복기간이 필요하다.

오타모반은 멜라닌세포를 선택적으로 파괴하는 레이저 치료를 한다. 두달에 한번 레이저 치료를 하며, 10번은 해야 효과가 있다. 혈관종은 7세 이후까지 자연소실이 안되면 혈관레이저로 제거한다. 밀크커피색 반점은 Q-스위치 레이저를 사용한다. 선천성 모반은 점 깊이가 상당히 깊어서 오랜기간 다양한 치료를 병용한다. 사마귀치료는 한번에 모두 제거할 수 없고, 1~2주 간격으로 10회 이상 냉동치료를 받아야 하며, 백반증 중 6개월 이상 번지지 않는 국한성 백반증은 표피이식술이 치료효과가 좋다.

### 오래 걸리는 '치과질환' 치료, 방학이 적기

충치와 잇몸질환은 아동기에 시작돼 평생 지속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고, 발견되면 바로 치료해야 한다. 충치가 심해져서 신경까지 침범하면 신경치료를 하고 금니로 씌워 주어야 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조기 발견과 치료가 필수적이다.

충치 예방을 위해 올바른 칫솔질로 구강위생을 철저히 하고, 불소도포나 실란트를 하면 도움이 된다.

치주질환은 심한 입냄새와 잇몸출혈, 치아 흔들림이 주 증상으로 잇몸에 염증을 일으키는 세균이 치아를 잡고 있는 잇몸뼈를 녹여 치아가

힘없이 빠지게 되는 무서운 질환으로, 40대 이후에 치아를 잃는 주범이다. 따라서 식사 후에는 바로 칫솔질을 하여 치주질환의 원인이 되는 세균을 없애고, 정기적으로 스케일링을 하여 조기에 예방해야 한다.

치열이 좋지 못하면, 음식물 씹기가 어려워 영양섭취에 지장을 받고, 발음도 나빠질 수 있고, 음식물이 잘 끼게 되어 충치나 잇몸질환도 잘 생기게 되므로, 바르지 않은 치열이나 위아래 턱이 잘 맞지 않는 부정교합은 교정치료가 필요하다. 이미 성장이 완료되었거나, 치열이 완성된 후에는 교정치료가 어렵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치료비도 비싸므로 조기에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심한 경우에는 편도 및 아데노이드 적출술을 시행하기도 한다.

급성 중이염은 귀의 통증, 발열을 보이고 심하면 귀에서 고름이 흘러나오기도 하며 대개 수주 간의 항생제 및 소염제의 약물 치료로 치유되나, 이의 합병증으로 삼출성 중이염이 흔히 동반되기도 한다. 삼출성 중이염이란 고막안쪽의 중이에 물이 고이는 병으로 청각 장애를 동반하며 통증이 없으므로 환자 자신은 병이 있음을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많아, 소아의 경우 장기간 방치시 언어 발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해야 한다.

### 점빠기 · 흉터제거 어렵지 않아요

방학기간 동안 하는 것이 좋은 박피술은 레이저 후 딱지가 떨어지는데 2주 정도면 충분하다. 그러나 여드름 흉터 같은 깊은 박피를 하는 경우엔

〈자료제공 : 정신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치과〉



# 말더듬이, 윈스턴 처칠



**아**이들의 말더듬으로 찾아오는 대부분의 부모는 아이가 말더듬 때문에 놀림을 당하지는 않을까, 속칭 「왕따」를 당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에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유명인 중에도 적지 않은 사람이 말더듬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표적인 인물이 「윈스턴 처칠」, 「마릴린 폰로」, 「찰스 시몬」, 「제임스 얼 존스」 등이다.

이들 중 말더듬이 한계를 극복하고 유명한 연설가, 정치가,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학자인 윈스턴 처칠은 여러 가지 면에서 자신의 한계를 극복한 인물이다. 우리가 기억하는 윈스턴 처칠의 이미지는 시가를 물고 손가락으로 승리의 「V」를 그리며 작지만 당당한 체구로 당시 독일을 상대로 연합군을 지휘하는 모습일 것이다. 피폭지역을 방문하여 국민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피력하여 사람들을 감동시켰던 처칠은 타고난 웅변가가 아닌 심한 말더듬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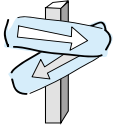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고자 처칠은 자신의 연설을 위해 말 한마디 뿐 아니라 동작 하나 하나에 예민했으며 대중 연설에서의 자신의 약점을 계속해서 고쳐 나갔다고 한다. 유명한 일화로 옥스퍼드대학의 졸업식에서 단 두마디의 말,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로 축사를 하고 모자를 쓰고 연단을 내려왔던 일에 대해 혹자는 처칠의 말더듬 때문이 아니었나 하는 재미있는 추측도 있을 정도이다.

말을 더듬는 것은 일반적으로 유년기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남자 아이들이 여자 아이들보다 네 배 정도 더 많으며 아이들이 언어능력을 발달시키고 있는 동안에 시작된다. 말더듬의 원인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개인의 심리적인 원인, 유전적인 원인과 기질적인 원인 등이 이야기 되고 있다. 기질적인 원인으로는 뇌의 좌·우반구의 청각 및 언어 정보처리의 부조화 등이 제기되고 있으며, 심리적, 환경적인 원인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특히, 어린이가 자라 온 발달환경과 여기에 기인한 이상 심리의 형성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보통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단어를 반복하지만 말을 더듬는 아이들은 단어 대신 음을 반복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 주로 첫 음절의 반복상태가 초기 증상으로 나타난다(예를 들면, 하하하하, 다다다다음에 하자 등). 이후 부수적인 신체행동으로 머리를 흔들거나 손으로 박자를 맞추어 말을 하거나 눈을 깜박이는 등의 행동을 하게 되는데 이는 자신이 말더듬을 인식한 상태로 말을 잘하기 위한 일종의 투쟁행위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불필요한 말을 먼저 하는 경우(예를 들면, 「예 저」, 「그니까」, 「뭐냐」, 「어」 등)와 단어 대치 또는 문장을 도치하여 말하는 현상이(예를 들면, 「동생이 때렸어요」 대신 「때렸어요 동생이」) 생길 수 있다.

말더듬이 진행되고 말더듬으로 인하여 창피함을 당한 경험이 많아지게 되면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고 혼자 있으려고 하고 전화가 오면 끊어버리는 행동을 하기도 한다. 따라서 지속적인 말더듬이 진행되고 있는 아이들은 여러 가지 원인을 고려하여 상담하고 치료를 해야 한다. 특히, 성인에서 발생한 말더듬의 경우에는 일과성 국소 허혈 등의 뇌혈관계 질환이나 외상 혹은 뇌염 등과 같은 감염성 질환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전문적인 진료가 필요하다.

김 철 호 교수 / 이비인후과학교실



## 절망적인 상황에서 얻은 소중한 경험

6년 간의 꿈같은 의과대학 생활(?)을 마치고 시작된 인턴생활. 단지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루 아침에 엄청난 의무감과 책임감에 짓눌려 하루살이 같은 생활이 시작되었다. 지금 돌아보면 참 아무것도 아니었던 일조차도 혹여 실수나 하지 않을까 조마 조마 하며 생활했고, 그래서 정말 순수한 마음에 더욱 열심히 일했던 때가 아니었는가 싶다(지금 그렇게 일하라고 하면 절대 못할 것 같더라 생각만 든다 ^.^). 하지만 의욕만 앞섰을 뿐 돈키호테처럼 저돌적으로 밀어붙이며 일한 덕에 얻은 것은 단지 병뿐이었다. 왜 그리 미련스럽게 일을 했는지 ...

그때 난 처음으로 「절망」이란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절망」이란 단어는 그저 이웃이나 다른 사람의 얘기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때 내 모습이 그러했다. 멀쩡하던 두 다리가 부어오르고 통증이 심해 입원실의 침대에서 내려올 수가 없었고 심지어 침대에서 돌아눕는 것도 할 수 없어 어머니께서 나를 부축해 돌아 눕히곤 하셨다. 나 자신이 믿기지 않았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인턴생활을 그만 두어야 할지를 심각하게 고민하던 중 다행히 병세에 차도가 있어 퇴원을 하고 다시 인턴생활을 계속했지만 여전히 다리가 불편해 그후로도 몇 개월간을 다리를 절뚝거리며 다녀야 했다. 처음에는 일이 많고 고된데다가 다리가 불편해 나 자신에 대한 불만으로 가득했다.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긴 것일까?」라는 질문만을 수없이 되뇌이곤 했다.

그렇게 인턴생활을 마치고 다시 레지던트 1년차 생활을 정신없이 하던 어느 날이었다. 그날도 어김없이 1년차에게 주어진 업무를 위해 동분서주하던 중이었다. 다른 생각을 하던 나는 미처 「확산작업 중」이라는 안내문을 보지 못한채 금지구역으로 들어섰다. 순간 내 발은 허공을 갈랐고 내 몸은 정상적인 축을 벗어나 우주공간에서나 해법직한 동작을 선보이고 있었다. 「아뵤사!」라는 생각과 함께 내 몸이 공중분해 되려는 찰나 그래도 하늘은 나에게 무심치 않았다. 군인이셨던 아버님의 뛰어난 운동신경을 물려받은 덕에 나는 배우지도 않은 쿡후 비스무레한 착지동작으로



무사히 그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절로 박수가 나오게 할 상황인 듯 했는데 그 순간 터져나온 것은 박수가 아닌 칭소하는 아주머니의 질문이었다. 「선생님, 다리 이제 괜찮으신가요?」.

나는 그 아주머니를 돌아보았다. 분명히 전에 본적이 없는 분이였다. 의아해 하는 나의 모습에 그 아주머니의 대답은 나에게서는 정말 뜻밖이었다. 지난 몇 개월간 절뚝거리고 다니는 내 모습을 많이 보셨다는 것이었다. 아마도 절뚝거리면서 다니는 내 모습이 많이 불쌍해 보였나 보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이것이었다. 내가 아픈걸 기억해 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 가족이 아닌 누군가가 있다는 것이 이상하리만큼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것이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목사님이 한 분 있었다. 폐암으로 사형선고를 받고 항암치료로 몸이 말라니 아니셨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은 그래도 주일 저녁설교를 직접 하셨는데, 목사님의 설교 한마디 한마디가 그때처럼 마음에 와 닿은 적이 없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말씀이 한가지가 있다.

「아픔의 고통을 직접 겪어본 사람이 그 아픔을 감싸주고 달래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

내가 만나게 될 수 많은 환자들의 아픔과 고통을 이해하고 감싸주는 아주 작은 밑거름이 된다면 이러한 절망적인 경험도 꼭 나쁜 것만은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조 대 성 레지던트 / 비뇨기과 3년차





# 『다시 설 수 있을까요?』

**정**형외과적인 질병 중에서도 환자로 하여금 정신적, 신체적으로 많은 제약을 가져오게 하는 질병이 류마티오이드 관절염이다. 신체적으로는 다른 관절도 문제가 되지만 하지에 심하게 병이 있는 경우에는 일어서거나 걸을 수 없기 때문에 환자 본인에게는 가장 심각한 장애를 줄 수 있다. 따라서 우울증도 생기고, 사회적으로도 적응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고 심한 경우 삶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다.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환자는 꽃다운 28세 여자 환자이다. 처음 외래에 방문하였을 때에는 류마티오이드 관절염으로 휠체어에 앉기도 힘들만큼 양쪽 무릎이 거의 접혀있는 상태였다. 본인의 힘으로 서는 것은 물론 불가능 하려니와 주위의 말에 의하면 평소 활발하던 성격도 점차 어두워지는 것 같다고 하였다.

환자의 희망은 단 한가지였다. 『다시 설 수 있을까요?』 우선 슬관절의 굴곡구축이 심한 것을 펴기로 했다. 변형된 지 10년 이상 되어서 한번에 교정하는 것은 주위 혈관 및 신경의 손상이 예상되기 때문에 일리자로프를 이용하여 점진적으로 교정하기로 하였다. 이 방법이 이 환자에게 가장 좋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였으나 과연 어느 정도까지 펴 수 있을지 장담하기는 힘들었다.

수술 전날 환자에게 수술에 대한 이런 저런 설명을 해주면서 너무나 낙관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를 해주었다. 그 순간 환자에게서 들은 말은 『선생님, 저는 힘들어도 얼마든지 견딜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자신 있다고 하시고 희망적인 얘기를 해주셔야 제가 힘을 내어 치료하고, 또 힘을 북돋아 주셔야 제가 버티지, 선생님이 힘들다고 하시면 어떡해요』였다. 무엇인가에 얻어맞은 느낌이었고 아차 하는 생각이 들었다. 수많은 환자에게 시달리면서 수술 후 합병증이나 안 좋아질 수 있는 상황만을 집중적으로 설명해주는 것에 익숙해진, 그래서 응급환자의 처치시 A, B, C, D, 이후에 E(escape)를 항상 생각하는 요즘 의사인 나에게 그 말은 상당히 충격적이었다.

환자의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이후 지루하고도 힘든 교정작업이 몇 개월에 걸쳐 시행되었다. 각도도 재교정하고 관절의 아탈구도 교정하고 굳어버린 발목관절도 다시 제자리로 돌려서 교정 시키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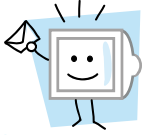
그 힘든 과정동안 환자는 한번도 울거나 불평하지 않고 항상 긍정적이고 밝은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생활하였다. 환자의 침대 옆 벽에는 자신이 병에 걸리기 전 활발하고 예뻐했던 시절의 사진을 항상 붙이고 있었다. 아마도 그 때의 사진을 보며 치료의 의지를 가다듬곤 했던 것 같다.

수술 후 한참이 지나고 무릎이 펴지고 어느 정도 적응이 된 후 보행기를 사용하여 일으켜 보았다. 환자는 상기되어 있었고 땀을 뻘뻘 흘리며 힘들어 했지만 매우 흥분이 되어 있었다. 나중에 들어보니 회진 이후에 한참을 병실에서 울었다고 한다. 퇴원을 하고 몇 개월 후 스스로 목발을 짚고 서서 걸어서 외래에 방문하였다. 이제는 다리에 하고 있던 김스도 모두 풀고 목발 보행도 아주 많이 자유스러워졌다. 화장도 하고 멋진 옷도 입고 역시나 웃는 얼굴로 방문하였다. 『선생님, 이제 살 것 같아요』

환자를 치료해 본 경험이 있는 의사라면 모두 느끼는 것이겠지만 힘든 일정 속에서도 가장 기분 좋은 일은 힘들게 치료한 환자가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올 때라고 생각한다. 물론 치료하기에 쉬운 비교적 간단한 질병도 있고 어렵고 중한 질병도 있겠지만, 의학적인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환자의 밝고 적극적인 의지와 의료진의 태도(환자에게 안심을 주는 자신감)라는 생각이 든다. 어쩌면 의사로서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사항을 환자에게 역으로 배운 이후 오늘도 환자를 맞이할 때마다 그 환자 생각을 하게 된다.

『장미철이라 좀 불편할 텐데, 괜찮을까 ...』

전 영 수 교수 / 정형외과학교실



## 행복했던 아주대병원에서의 3개월

저는 2003년 12월3일 불의의 교통사고로 119 구급차를 이용하여 아주대학교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멀쩡하게 서 있는 사람을 뒤에서 그것도 후진차량이 빠른 속도로 저를 덮쳤습니다.

1분도 안되는 시간동안 승합차 밑에서 벌렸던 사투는 지금 생각해도 끔찍합니다. 다음날 깨어나 보니 상체는 온통 붕대로 감겨 있었고 머리에는 붕대모자를 쓰고, 다리는 뭔가 무거운 것이 잡아 당기며 추가 달려 있었습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저의 초기 진단이 20주였습니다. 그래도 가슴부위의 장기는 다치지 않았다는 아내의 말에 가슴을 쓸어 내렸습니다. 그 후로 책에서나 읽어 본 병상생활에 나에게 시작되었습니다.

정형외과 조재호 선생님이 저의 주치의였습니다. 저는 매일 그분의 회진을 받으면서 건강하게 퇴원할 수 있다는 믿음이 쌓여 갔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평온하고 행복했습니다.

7년간 아버님의 투병생활을 겪으면서 접했던 의사와는 분명 다른 분이었습니다. 발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까지 그리고 나의 모든 물음에 싫은 내색 하나 없이 입원기간 내내 자상하게 응해주시고 성심껏 답하여 주신 조재호 교수님은 분명 제가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분이셨습니다.

이제 다른 병원에 와서 보니 더욱 더 조재호 교수님의 자상함이 생각합니다. 이진열 선생님, 8층 정형외과 병동의 모든 간호사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강한 몸으로 꼭 인사드리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조재호 선생님의 행복한 미래를 빌겠습니다.



이 글은 조준호님께서 아주대학교의료원 홍보팀으로 보내주신 편지글입니다.

의료원 ▶▶▶

## 의료원 교직원, 사랑의 헌혈운동 실시



최근 헌혈 대상자가 감소하여 적십자 혈액원으로부터 혈액수급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에서 아주대의료원 교직원들이 환자들을 위한 사랑의 헌혈운동을 실시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7월12일부터 진단검사의학과 헌혈실에서 실시하고 있는 헌혈운동에는 응급의학과 조준필 주임교수, 진단검사의학과 조성란 교수를 비롯하여 많은 교직원들이 동참하고 있다.

의료원은 2003년까지 적십자와 연계하여 꾸준히 교직원 헌혈 캠페인을 실시해 왔으며, 8월 이후에도 혈액수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는 장기적인 계획으로 헌혈운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 의료원 인라인 동호회, 효행원 청소년을 위한 스포츠 봉사활동 실시

아주대학교의료원 인라인 동호회는 의료원 10주년 기념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청소년 사회 복지시설인 효행원의 청소년들을 위한 스포츠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한다.

이번 봉사활동은 효행원 청소년들과 인라인 스케이트를 즐기면서 정정 당당한 스포츠맨십 및 사회성을 강화하고 신체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7월21일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첫 봉사활동을 실시했으며 매주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인라인 동호회의 스포츠 봉사활동과 관련해 의료원은 지난 7월14일 아주대병원 지하1층 수석홀에서 인라인을 타면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헬멧과 보호대를 마련하여 효행원 아이들에게 전달했다.

한편, 영양팀 「밑반찬 만들기」 자원봉사단은 지난 7월7일 정성껏 마련한 밑반찬을 권선구 관내 독거노인 10여 가구에 나누어 드리는 봉사활동을 펼쳤다.







**「중년 여성의 건강관리와 비만」을 주제로 한 건강강좌 개최**

의료원은 10주년을 기념하여 지난 7월15일 여성회관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제3차 건강강좌를 개최했다.

이날 건강강좌에서는 130여명의 지역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가정의학과 김범택 교수가 「중년 여성의 건강관리와 비만」을 주제로 강의했으며, 강의 후 무료 심전도 측정 및 간단한 건강상담을 실시하여 많은 호응을 얻었다.

**교직원 월례회 개최**

의료원은 7월28일 수요일 오후 5시30분부터 별관 대강당에서 「7월 교직원 월례회」를 개최했다.

이번 월례회에서는 6월 모범교직원으로 선정된 안과 손근배 직원을 시상하고, 이참 방송인(참스마트(주) 대표이사)을 초빙하여 「세계화 속의 한국, 한국인」이란 주제로 교양 특강을 실시했다.

이참 강사는 한국의 세계화와 우리 벤처기업의 발전을 위해 애쓰고 있는 귀화한 독일인으로, 세계화 물결 속에서의 한국, 한국인을 객관적으로 바라본 시각에 관해 강의를 했다.

의료원은 매달 정기적으로 열리는 교직원 월례회에서 사회 각 계각층의 저명 인사를 초빙하여 교양 특강을 실시하고 있다.

**의료원을 주제로 한 사진 공모**

의료원은 10주년을 기념하여 아주대학교의료원을 주제로 한 사진을 공모하여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공모기간은 7월20일부터 8월10일까지이며, 공모 작품소재는 ▲ 병원을 배경으로 한 조경 또는 풍경사진 ▲ 환자, 보호자, 교직원, 학생 등의 인물사진 ▲ 각종 행사 사진 등 아주대학교 병원 개원 이후 현재까지 아주대학교의료원을 주제로 한 사진이다.

의료원은 당선작에 한하여 오는 9월6일부터 11일까지 약 6일간 병원 1층 로비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전시회에는 공모 당선작 외에 아주대학교의료원 10년을 되돌아 볼 수 있는 기념 사진들이 함께 전시될 예정이다.

**의과대학 ▶▶▶**



**미세현미경 수술 해부실습실 오픈**

의과대학 신경외과학교실 및 이비인후과학교실은 송재관 내 해부실습실에 미세현미경 수술 해부실습실(Microsurgical Laboratory)을 설립, 지난 7월7일 문창현 의과대학 학장 및 관련 교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오픈식을 가졌다.

미세현미경 수술 해부실습실은 두경부 및 신경계의 수술 해부를 실제 수술하는 것과 동일한 미세현미경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2004년 3월부터 신경외과학교실과 이비인후과학교실이 함께 계획하여 추진해 왔으며, 해부학교실의 협조하에 설립됐다.

미세현미경 수술 실습실이 운영됨에 따라 의과대학은 전공의 교육 수준 및 수술해부 수준을 한차원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의과대학, 2004 해외교환학생 프로그램 실시**

의과대학은 여름방학 기간동안 2004 해외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28일, 29일 아주대 의대 김은호 학생이 하버드 의과대학으로, 배지현 외 2명이 스토니브룩 대학으로, 김현경 외 2명이 플로리다 대학으로 출국했다. 외국에서 아주대 의과대학으로 연수 온 스토니브룩 대학의 Richard Hun Chung 학생은 7월23일까지 의과에서, Susan C Shin 학생은 7월31일까지 소아과에서 실습을 실시했다. 한편, 의과대학은 지난 7월22일 목요일 교환학생과 의과대학 5학년 학생들과의 간담회 자리를 마련, 아주대 의과대학에서 실습을 하며 느낀 점과 스토니브룩 대학과의 차이점 등 자유로운 토론의 기회를 제공했다.



**뇌질환연구센터 이명애 교수, 후즈 후 인명사전에 등재**

의과대학 뇌질환연구센터 이명애 교수가 세계적인 인명기관인 마르키스사에서 발견하는 후즈 후 (Who's who)에 「의학 및 보건분야」 업적자로 등재됐다. 이명애 교수는 사람 신경 줄기세포를 도파민 신경세포로 분화 유도해서 파킨슨병의 세포치료에 적용하는 연구성과가 높이 평가되어 오는 8월에 발간되는 2004~2005년 판 「Who's who in Medicine and Healthcare」에 등재될 예정이다.

**생화학교실 임인경 교수, 세포노화의 새로운 표지 발견**



의과대학 생화학교실 임인경 교수 팀은 그동안 세포질에만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던 「액틴 단백질의 핵내 집중현상이 세포노화의 표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 2004년 1월15일자로 국제적으로 저명한 학술지인 Cancer Research에 발표했다.

**의과대학 SCI 등재 학술논문집 발간**



의과대학 의학문헌정보센터는 최근 2003년도 의과대학 SCI 등재 학술논문집 제6집을 발간했다. 2003년 한 해 동안 SCI 등재 학술잡지에 게재된 논문

수는 총 154편으로, 이번 학술논문집에는 기초, 임상, 의과학연구소, 뇌질환연구센터 순으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도서기증**

뇌질환연구센터 김승업 교수가 「신경병리학」 1권을, 이비인후과학교실 박기현 교수가 「Otolaryngology Ten Years」 2권을 의학문헌정보센터에 기증해 주셨습니다.

**의과학연구소 연구과제 협약**

■ 2004년도 뇌신경생물학연구사업 신규과제

뇌질환연구센터 이명애 교수 / 도파민 신경세포의 분화시 전사인자 Nurr1 및 REST에 의한 분화의 조절기능 연구 및 이의 조절이상의 파킨슨병의 병인 가능성 조사 / 총 연구기간 2004.6.21 ~ 200.3.31 / 당년도 연구기간 2004.6.21 ~ 2005.3.31/당해년도 연구비 5,500만원

■ 2004년도 젊은 과학자 연구활동 지원사업 신규과제

생화학교실 윤계순 교수 / 미토콘드리아 호흡기능 이상으로 유도된 세포고사에서 미토콘드리아의 형태와 세포내 분포조절의 중요성 연구 / 총 연구기간 2004.7.1 ~ 2007.4.30 / 당해년도 연구비 158,900천원

**이복순 조교, 학술상 수상**

의과대학 생화학교실 이복순 조교수가 7월9일부터 10일까지 개최된 분자암연구학회 Summer Conference에서 포스터 학술상을 수상했다.

수상한 발표 제목은 「Activation of HGF/c-Met signaling induces delayed STAT3 phosphorylation in NIH3T3 cells」이다.

**포 원** ▶▶▶



**병원, 갑상선 결절환자를 위한 One Stop 진료 실시**

병원은 2004년 8월 둘째주부터 진료의뢰병원에서 의뢰하는 갑상선 결절환자에 한해 One Stop 진료를 실시한다.

One Stop 진료란 최소한의 병원 방문으로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도록 진료 및 검사일정을 통합시킨 새로운 진료형태로, 진료의뢰병원에서 진료의뢰센터를 통해 진료예약 및 특수검사를 동시에 예약할 수 있다.

진료일은 내분비내과 김대중 교수가 매주 화요일 오전 9시부터 9시30분까지, 외과 소의영 교수는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부터 11시30분까지 실시하며, 진료후 1, 2시간 간격을 두고 갑상선 핵의학 검사(Thyroid scan)와 내분비검사(Thyroid aspiration cytology)를 진료 당일 받게 된다.

〈 문의 : 진료의뢰센터 ☎ 031-219-4646 〉

**건강증진센터 성인병 및 암, 뇌졸중 예방을 위한 숙박검진 및 암검진 도입**

아주대학교병원 건강증진센터는 숙박검진 및 암검진을 새로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다.

숙박검진은 1박2일에 걸쳐 PET CT, MDCT, MRA & MRI 등 최첨단 의료장비를 이용하여 성인병 및 암, 뇌졸중 예방을 위한 다양한 검사를 실시하는 프로그램으로, 검사시 전문요원이 1:1로 동반하여 안내한다. 또한 입원 첫날 주치의와 평소 궁금하던 건강문제를 비롯한 가족력, 건강 이력 등을 상담하여 검진프로그램에 반영하며, 퇴원일에 검진결과의 대부분을 주치의로부터 설명들을 수 있고, 검진결과는 CD-Rom으로 제공한다. 숙박검진 비용은 380만원이다.

한편, 암검진은 한국인의 질병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 발견하기 위한 검진 프로그램으로, I형과 II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암검진 I형은 230만원, II형은 160만원으로 8시간 정도 소요된다. 자세한 내용은 아주대학교병원 홈페이지, 건강증진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아과, 저신장 무료 건강강좌 개최**



소아과는 대한소아내분비학회 후원으로 지난 7월15일 목요일 오후 3시 별관 대강당에서 성장기 아동의 저신장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무료 건강강좌를 개최했다.

이날 건강강좌에서는 소아과 황진순 교수가 ▲ 성장장애의 다양한 원인 및 치료법 : 저신장 자가진단 방법 및 최종 성인 신장 예측법 ▲ 정상적인 성장을 위한 영양 및 운동 관리법에 대해 강의하고 학부모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병원, 하절기 위생점검 강화**

병원은 원내 위생안전을 위하여 영양팀, 총무팀, 감염관리사, 보건관리사 4명으로 이루어진 위생점검단을 가동하고 있다.

특히, 식중독 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하절기 기간동안은 매주 목요일 주1회 원내 편의시설 및 교직원식당 등 급식시설 전반을 무작위로 검열하는 위생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신문 · 방송에 보도된 아주대의료진**

**신문(Newspaper)**

일시	매 체	보도대상자	보도 내용
6.29	경향신문	정신과 정영기 교수	'하루' 를 지배하는 건 '잠'
6.29	경인일보	피부과 이상낙 석좌교수	의료원발전기금 1천만원 기부
6.30	한겨레	진단방사선과 조재현 교수	영상으로 짚은 건강이야기-기생충 감염
7.7	한겨레	산부인과 양정인 교수	찜질방, 천음식 '멀리...' 가벼운 운동 '가까이'
7.7	한겨레	진단방사선과 조재현 교수	영상으로 짚은 건강이야기-기충
7.14	한겨레	진단방사선과 조재현 교수	영상으로 짚은 건강이야기-간염
7.14	경인일보	응급의학과 조준필 교수	인명사전 '후즈 후...' 올라
7.21	한겨레	진단방사선과 조재현 교수	영상으로 짚은 건강이야기-내장비만
7.23	동아일보	예방의학교실 장재연 교수	발안대-수돗물도 공급자 실명제하

**방송(Broadcasting)**

일시	매 체	보도대상자	보도 내용
6.30	KBS 뉴스타임	진단방사선과 조재현 교수	보양식 잘못 먹었다가는 기생충 감염
7.1	KBS 9시뉴스	진단방사선과 조재현 교수	보양식 잘못 먹다간 기생충 감염 위험
7.3	SBS라브FM 유명미의미음...	피부과 이은소 교수	우리집 주치의 - 무좀, 티눈
7.13	KBS 생로병사의비밀	신장내과 김홍수 교수	만성신부전, 혈압과의 전쟁
7.17	SBS 세상에서 가장...	신경외과 윤수환 교수	풍모야모야병, 오해란 · 유란 자매
7.20	KBS 생로병사의비밀	신경외과 조기홍 교수	목디스크 질환, 전신마비를 부른다
7.24	SBS 세상에서 가장...	유전학클리닉 김현주 교수	우리 아니, 광민이를 소개합니다

**아주 사회사업기금**

**후원구좌 가입 안내**



아주대병원 사회사업팀에서는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환자의 진료비 및 재활용품 지원, 지역사회내의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아주사회사업기금 모금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 지로계좌번호 7657236
- ▶ 은행무통장 입금  
제일은행 692-20-116147
- ▶ 예금주 아주대학교의료원



## 간이식 주저하지 마세요

**간**경화는 다양한 원인에 의한 간장의 섬유화로 간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질병인데, 이 단계에서는 약물 치료만으로 굳은 간을 정상으로 돌이킬 수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대부분 B형 간염에 의한 간경화가 가장 많으며, 간경화가 진행되면서 간암으로 발전되기도 하므로 주기적으로 추적 검사를 하게 된다. 일단 간경화가 있는 경우 근본적인 치료는 정상의 새로운 간을 이식하는 방법이 유일하다.



간이식은 오랜 시간의 마취와 복잡한 수술과정을 통하여 굳어진 간을 제거하고 건강하고 새로운 간을 이식하게 되는 수술 치료로, 수술 후 회복이 원활하여야 건강한 생활을 찾을 수 있다. 수술 후 무난하게 회복하려면 수술 전 환자의 전신상태가 가장 중요하며, 회복하는데 필요한 체력이나 저항력, 상처가 아무는 생리적인 과정이 있어야 성공적으로 수술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 그러므로 간경화 환자는 근본적인 치료인 간이식을 결정하는데 있어 그 시기를 현명하게 선택하여야 한다.

간경화가 있는 환자나 가족들은 간경화로 인한 합병증이 있어 생명이 위독해져야 비로소 이식을 생각하게 되는데 이는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 생명이 위독한 상태에서의 수술은 작은 수술이라고 하더라도 매우 위험도가 크며, 수술 후 환자가 회복되지 못하고 사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하물며 간을 바꾸는 대수술을 그러한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은 무모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단지, 이식수술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고, 꺼져 가는 생명을 방치할 수 없어 수술을 시도해 보기는 하나, 수술 후 회복기에 사망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현실이다. 이는 어느 나라, 병원, 의료진에 관계없이 환자 스스로 처해 있는 수술 전 상태에 따라 결정되는 요소이다.

우리나라의 간경화 환자들은 간이식에 대하여 매우 주저하는 경향이 있다. 한 두 번의 합병증을 경험한 환자도 당장 생명을 연장할 수

있다고 생각되면 근본적인 치료를 꺼려하는 것이 보통이다. 물론 이식은 마취와 수술의 위험도를 감수하여야 한다. 그러나 간경화는 시간이 지나면서 호전될 수 없는 질환임을 감안하면 상태가 더욱 나빠지기 전에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이 현명하겠다.

우리나라에서도 장기이식에 관한 법률이 2000년도부터 시행되어 간이식이 필요한 환자에 대한 기준이 이미 정해져 있다. 간경화로 인한 검사 소견이나 증상이 있었던 환자는 간이식이라는 근본적인 치료를 받도록 이미 법률로도 정해져 있으며 아주대학교병원에서도 대상이 되는 환자에게 간이식이라는 근본적인 치료를 제공하려 노력하고 있다. 한번이라도 황달, 복수, 복막염, 간성혼수, 토혈 등의 간경화 합병증이 있었거나 검사상 혈중 알부민 저하, 혈액 응고인자의 저하가 확인된 환자는 서둘러 간이식이라는 근본적인 치료에 대하여 논의하여야 한다.

아주대학교병원 3층 장기이식 상담실(☎ 031-219-5547)은 이식이 필요한 환자에게 언제나 열려 있다.

오창 권 교수 / 외과학교실

제 몸을 나누어 또 다른 생명을 만드는 장기기증은 세상의 가장 값진 사랑입니다. 가슴시리도록 고귀한 이 사랑을 베푸는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장기기증 TFT · 장기이식 코디네이터 문의전화 031-219-5547 | 016-9277-5376



# 여름철 우리 아이 괴롭히는 「피부질환」!



여름이 되면 어젯밤에 더위 혹은 감기로 인한 열 때문에 땀을 많이 흘리더니 아기 몸에 발진이 생겼다고 찾아오는 엄마들을 종종 본다. 아기의 머리나 목 주변, 등, 배, 겨드랑이 등에 보기만 해도 아파 보이는 빨간 좁쌀만한 발진이 돌아 있다. 땀띠는 땀에 부푼 각질이 땀구멍을 막기 때문에 배출되지 못한 땀이 피부내에 고여서 생기는 질환이다.

일단, 땀띠가 발생하면 시원한 환경에 두는 것이 기본이다. 에어컨이나 선풍기, 자극을 주지 않는 간단한 샤워 등으로 땀을 제거한다. 피부과에서 권하는 아주 약한 스테로이드 로손이 도움이 되며, 가려움증이 심할 때는 소량의 항히스타민제를 투여한다. 엄마들이 흔히 사용하는 베이비 파우더는 오히려 땀구멍을 막아 땀띠가 더욱 번질 수 있으므로 자제해야 한다.

땀띠와 함께 아이를 괴롭히는 여름철 피부질환 중 하나인 기저귀 발진은 기저귀를 찬 사타구니나 엉덩이가 빨강게 짓무르는 것을 말한다. 원인은 대소변으로 눅눅해진 기저귀와 연약한 아기피부가 자주 마찰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장 좋은 치료와 예방법은 건조함을 유지하는 것이다. 자주 기저귀를 갈아 주고 피부를 건조하게 말려 주어야 한다. 연고를 두껍게 발라 기름막을 쳐버리면 피부수분 증발이 곤란해져 발진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약한 스테로이드 연고를 안 바른 듯 얇게 바르는 것이 중요하다. 베이비 파우더는 일시적으로 피부를 건조하게 할 수는 있지만, 일단 발진이 생겼을 때는 땀띠와 같은 이유로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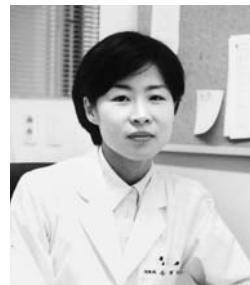
기저귀 발진이 3일 이상 지속되면 칸디다균에 의한 이차 감염이 발생

할 수 있는데, 일반적인 기저귀 발진과는 달리 주변에 붉은 좁쌀모양의 구진과 고름을 형성하는 위성 병변을 보이며, 서해부 주름을 침범하는 특징이 있다. 이 때는 일반 습진치료용 연고를 바르면 증상이 더 심해지므로 별도의 항칸디다 제제를 발라야 한다.

여름철에 흔한 세균 감염성 질환인 농가진은 처음에는 붉은 반점으로 시작하지만 차츰 투명하거나 작은 물집이 생기고 그러다 물집이 터져 진물이 나오면서 황갈색 딱지가 앉게 된다. 손으로 긁거나 수건 등을 통해서 신체 다른 부위나 다른 사람에게 퍼질 수 있다. 심한 경우 전신 증상이 나타나면서 급성 사구체 신염과 같은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치료해야 한다. 몸을 청결히 하고 적절한 항생제를 투여하면 1~2주내에 치유된다. 환자의 격리가 예방에 필수적 조치이다.

또한, 여름철 유소아의 피부는 온갖 벌레들에게 좋은 공격목표가 된다. 곤충에 물렸을 때 발생하는 피부반응은 곤충의 침(타액) 속에 포함된 독소에 의해 유발된다고 하는데, 서로 다른 곤충에 의해서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피부병변만 보고 원인 곤충을 알아내기는 힘들다. 가장 흔한 증상은 일시적으로 지속되는 홍반이나 구진이며, 사람에 따라 차이가 많으나 대개는 심한 가려움증이 동반된다.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는 곤충의 침 속에 포함된 알레르겐에 감작되어 벌레 물린 자리 이외에도 구진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구진성 담마진이라고 부르고 있다.

치료는 가려움증을 덜어주고 2차 감염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가려움증을 없애기 위해서는 스테로이드 로손이나 연고를 바르고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한다. 대개는 이런 방법으로 좋아지지만 알레르기 반응에 의해 병변이 수개월간 지속될 경우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 한다.



강 희 영 교수 / 피부과학교실





## 아주대병원, 신형 지방흡입기 2대 도입



**최** 근 성형외과에 두 가지 방식의 신형 지방흡입기 2대가 도입됐다.

기존 지방흡입기가 단순히 흡입력만을 이용하여 지방세포들을 흡입, 제거하는 방식이었다면 이번에 아주대학교병원에 도입된 신형 지방흡입기는 저주파 진동으로 지방세포를 파괴하는 방식과 초음파를 이용하여 지방세포를 파괴한 뒤 흡입 제거하는 방식이다.

현재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의 커다란 이슈로까지 대두되고 있는 비만을 해결하는데에 운동과 식이요법이 최선의 길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지방흡입술은 단순히 쉽게 살을 빼는 차원을 넘어 당뇨나 고혈압, 관절문제, 피부질환 등 여러 가지 합병증을 유발하는 고도 비만의 치료에 있어 매우 유용한 치료법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물론 비만의 정도와 제거해야 할 부피, 피부와 다른 조직들의 늘어짐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절제술이나 다른 수술적·비수술적 방법을 모두 생각한 뒤 선택해야 하지만, 지방흡입술은 피부에 흉터를 거의 남기지 않는다는 점, 회복이 빠르다는 점, 적응증에 제한이 적다는 점 등의 장점이 있어 많은 경우에 비만 치료법으로 선택이 되고 있다.

최근 수차례에 걸쳐 지방흡입수술의 문제에 대해 여러 매체에서 다룬 것을 접할 수 있었다. 어떤 수술법이라도 모든 경우에 다 적합한 만능의 방법은 있을 수 없고, 어떤 수술이라도 그에 따른 위험이 없을 수 없다. 지방흡입술 후에 생길 수 있는 지방색전증과 같은 위험한 합병증을 막기 위해 혈관이나 주변 조직의 손상을 최소화 하고, 수술시간을 단축시키는 등의 노력이나 그것을 위해 새롭고 효율적인 신형 장비들을 도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필요한 경우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 정확한 시술을 하고, 문제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는 것만이 불필요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도 이 두 기기는 진일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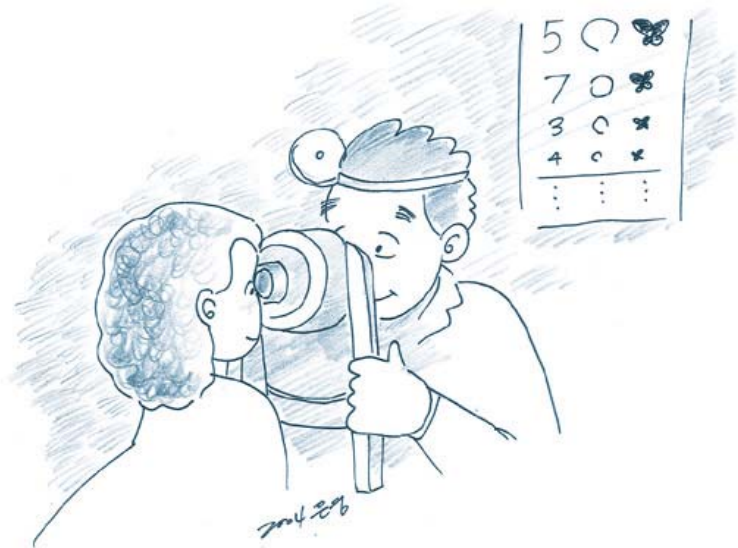
이번에 도입된 두 장비는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진동형과 초음파형 모두 기존 장비에 비해 효율성이 높다. 많은 양의 지방을 제거해야 하는 일반적인 지방흡입술에 있어 수술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켜 마취로 인한 여러 합병증을 동반할 수 있는 고위험군 환자의 수술에 있어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 또 초음파를 이용한 타입의 경우 액취증 등 다른 질환의 치료에 사용할 수 있어 흉터를 남기는 수술을 기피하는 분들에게 매우 유용하게 시행되고 있다.

박 동 하 교수 / 성형외과학교실



##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 중국에 있는 올케가 녹내장인데요 ...



**Q** 중국에 있는 제 올케가 녹내장인 것 같다는 진단을 받았는데, 수술을 한다면 국내에서 하고 싶어합니다. 수술시간과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요. 또, 수술이 아닌 약물치료를 받는다면 국내에서 약을 가지고 가 중국에서 치료받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녹내장 수술은 약물이나 레이저 치료로 안압이 조절되지 않는 경우에 시행하는 것이 보통이며, 약물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상황(부작용, 환자가 안약을 잘못 넣는 경우)에서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수술은 안압을 낮추기 위한 것입니다. 녹내장 수술로 시력을 좋게 하거나 녹내장을 완치할 수는 없습니다. 수술에 소요되는 시간은 1시간 내외이며, 눈의 상태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비용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정확한 비용을 안내하여 드리기 힘듭니다. 초진 후 진단을 위한 정밀검사를 예약하여 시행해야 하며, 한달 정도 약물에 대한 반응을 보고 치료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약물치료를 할 경우 안약을 점안하는 것으로 약을 가지고 중국에서 치료하셔도 됩니다.

〈안과 안재홍 교수〉

## 전립선 결석과 만성 전립선염 치료를 하고 있는데 ...

Q

전립선 초음파검사 결과, 결석이 발견되었으며, 4개월째 만성전립선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증상이 많이 좋아졌는데 약물치료가 더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최근 튜너수술법을 하면 완치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전립선 결석과 전립선염의 상관관계는 아직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항생제 치료를 4개월 하셨으면 이제 중단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성전립선염은 몸 컨디션에 따라 재발할 수 있으므로 음주나 밤을 새는 등 몸의 피로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소변보는 것이 불편한 배뇨증상이 있으시면 알파 차단제 등의 전립선비대증에 대한 약을 투여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알파차단제는 장기 복용하셔도 크게 부작용이 없습니다.

튜너치료는 전립선염에서 효과를 본 분들이 있습니다. 약을 복용하여도 효과가 없는 경우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비뇨기과 안 현 수 교수〉



비뇨기과 외래

031- 219-5585



「아주대의료원 소식」이 독자 여러분께 좀 더 유익한 의학정보지로 다가가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팩스, 우편, 이메일로 보내주시는 여러분의 참여는 보다 나은 「아주대의료원 소식」이 되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여  
러  
분  
의  
참  
여  
를  
기  
다  
리  
م  
다

### ■ 건강 Q & A / 나의 건강상식은

궁금해 하시는 건강문제에 대해 전문의에게 상담하고 싶은 내용을 문의해 주시면 만족스러운 상담이 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 ■ 우리 병원 어떻습니까

아주대병원 이용에 있어 느끼신 점 혹은 건의사항 등이 있으시면 최대 200자 원고지 5매(A4 3분의 2장 정도) 이내로 보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의견을 소중히 듣고 보다 좋은 병원 만들기에 노력하겠습니다.

### ■ 나누고 싶은 이야기 / Zoom & Zoom

아주대의료원 주변에서 좋은 일을 하는 분, 따뜻한 사연이 있는 분을 아주대의료원소식에 모시고자 합니다. 많은 추천을 부탁드립니다.

### ■ 제보 · 원고 보내주실 곳

- 전 화 031-219-5368 · 팩 스 031-216-6386
- 주 소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산 5번지 아주대학교의료원 홍보팀 (443-721)
- 이메일 apr@ajou.ac.kr





# 「환자 한명 한명이 존중받는 병동 만들기」에 앞

## 성형외과 박명철 교수가 말하는 8층 동병동



병원 식구들에게 성형외과에 대해서 물어보면, 쓸데없이 까다롭고 예민하며 해달라는 것은 너무 많고 교수건 레지던트건 얼굴보기는 너무 힘들고 ... 뭐 그런 식의 반응이 망설임 없이 흘러나오는 것을 각오를 해야 한다. 그 말들이 모두 맞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것이 자랑이 아닌 것은 당연하지만 그 만큼 우리가 환자들을 위

해 하는 일에 까탈스러운 부분이 많은 것 또한 사실인지라 알면서도 그리 쉽게 바뀌어지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그런지 병실 여유가 없을 때 환자분들이 입원하시게 되면 앞으로 어떤 병동이 우리가 부리는 교장(?)의 희생양이 될지 걱정스럽기까지 하다.

그런데 이걸 10년 동안이나 받아주면서 미더운 친구처럼 손발을 맞추어 주는 곳이 있으니 바로 8층 동병동이다.

8층 동병동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니 개원해서부터 흘러간 시간이 모두 성형외과에게는 이들과 함께했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면서 새삼 감사한 마음이 가득 차는 것을 느끼게 된다.

병동마다 환자에 대한 가장 적절한 치료를 위해 다양하고도 최선의 구성이 이루어져 있을 것이다. 회진 때마다 따라오는 큼지막한 드레싱 카트를 볼 때마다 「과연 이곳이 우리가 가장 마음 편하게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곳이구나」 하는 생각에 안심하게 된다.

수술실에서의 한차례 전쟁을 치른 후 외상과 수술의 고통으로 신음하며 병동으로 실려 올라가는 환자를 보며 마음이 답답해 질 때도 많지만 다음 날 아침 안정된 모습으로 회진을 맞는 환자들의 모습, 차차 회복되며 웃음을 되찾고 불편하지만 할 병원생활에 적응해 나가는 환자분들의 모습을 볼 때면, 지루하고 길지만 한 치유의 시간동안 함께 했을 그들의 손길이 더없이 고맙기만 하다.

앞으로 어떤 환자분들을 어떻게 치료할지,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힘든 시간을 필요로 하게 될지 모르지만 환자분들이 나서서 웃으며 병실을 나갈 때까지 8층 동병동의 식구들과 함께 할 거라 생각하면 왠지 마음이 든든해진다.



**아** 주대학교병원 8층 동병동을 들어서면 팔, 다리에 깁스를 하거나 머리, 코, 턱 등에 붕대를 하고 있는 환자들을 보며 심한 외상 환자들이 입원하고 있는 병동이라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8층 동병동은 성형외과 병동으로, 환자 대부분이 교통사고 등 갑작스런 사고, 외부 충격 등으로 인해 심한 외상, 골절, 중증 마비 환자들로 거동이 불편함은 물론 장기간 입원하는 경우가 많다. 환자들이 거동하기 힘든 만큼 간호사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아 간호업무는 더욱 힘들어지기 마련이다.

같은 자세로 오래 있으면 욕창이 생겨 크게 고생을 하게 되므로 수시로 자세를 변경하여 주는 것은 사사롭게 보이지만 매우 중요하고 힘든 역할이며, 상처부위에 2차 감염 예방을 위해 상처



# 장섭니다



소독, 환자개인 위생 확인 또한 매우 중요하다.

더욱이 환자들의 연령이 청·장년의 젊은 분들로 갑작스런 사고로 인한 심한 손상과 감각마비로 현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당황해 하거나 심적으로 상당히 불안하고 민감해져 환자치료에 있어 매우 작은 일에서부터 긴장을 늦출 수 없다.

이러한 병동의 특성상 나타나는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8층 동병동 식구들은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까? 노경식 수간호사는 「환자 자신이 세상에서 하나 밖에 없는 귀한 사람으로 존중받았다는 경험」을 받도록 하는 것에서 해결의 열쇠를 찾고 있다. 환자 한명 한명을 가족처럼 존중하며,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아무리 힘든 상황도 헤쳐나갈 수 있고, 환자의 쾌유를 보다 앞당길 수 있다는 것이 8층 동병동 식구들의 한결같은 마음이다.

특히, 입원환자들 대부분이 수술을 받기 때문에 환자들 「수술」 전후로 인해 받을 수 있는 불편함을 최소화 하기 위해 세부 실천계획까지 세워 놓고 있다. ▲ 간호사는 환자가 「수술」이라는 위기상황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한다 ▲ 환자, 보호자의 수술과 관련된 의견은 진료적이건 비진료적이건 관계없이 존중받았다는 느낌을 받도록 노력한다 ▲ 수술과 관련된 의사와의 의사소통은 환자 중심이어야 한다 ▲ 수술전후 간호업무는 환자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간호사는 환자만족을 항상 능동적으로 업무를 개선한다.

여기서 노경식 수간호사를 주축으로 한 16명의 간호사로 구성된 8층 동병동 식구들의 환자 중심의 적극적인 자세와 실천코자 하는 마음을 읽을 수 있다.

앞으로도 「환자 한명 한명이 세상에서 하나 밖에 없는 귀한 사람으로 존중받는 병동 만들기」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를 기대하여 본다.

## 은민희 간호사 말하는 8층 동병동



성형외과 병동에 근무한다고 하면 누군가는 우스갯 소리로 「견적이 얼마나 나오겠느냐?」라고 묻는다. 일반인들에게 성형외과는 단순히 미용성형으로 인식되기 쉽지만, 내가 근무하고 있는 8층 동병동 환자들은 단순히 미용차원이 아닌 골절, 절단 및 화상, 욕창, 당뇨 합병증 등 커다란 신체적 고통 혹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성형외과 질환으로 입원한다.

「입원」이라는 상황이 누구에게나 그러하듯이 매우 불안하며, 신체적·정신적·경제적 부담을 주는데, 여기에 심한 신체 고통이나 감각마비, 외모의 변화를 겪으면서 환자들이 받는 부담감이 더욱 가중되어 항상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다. 금연에서부터 밥 대신 물먹기, 욕창관리, 감염관리 등 겉으로 보기에는 별개 아닌듯 하지만 환자 한명 한명이 세심한 주의와 관찰을 필요로 한다.

이에 8층 동병동 식구들은 신체적 질병 뿐만 아닌 환자들의 마음까지도 치유하는 치료를 위해 주야로 비지땀을 흘리며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다.



# 소변도 잘 봐야 건강하다



## 맥주를 마시면 소변을 시원하게 잘 보게 된다?

맥주를 마시면 알코올의 이뇨작용 및 섭취된 수분의 양이 증가하여 소변량이 증가하고 소변을 볼 때 시원한 감을 느낄 수 있지만, 실제 알코올의 작용은 방광의 배뇨근육 수축을 억제하고 방광 경부의 폐색을 조장시킬 수 있어 전립선 비대증 등으로 방광출구 막힘이 있는 분들은 소변을 보지 못하는 급성 요도 막힘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

〈정답 : X〉

## 요실금은 완치가 되지 않는다?

요실금의 치료는 약물치료, 운동치료 그리고 수술치료로 크게 나눌 수 있으며, 요실금의 종류도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여성들에게 흔한 복잡성 요실금은 수술치료의 성공률이 90%에 이르기 때문에 충분히 완치가 가능하다.

〈정답 : X〉

## 옥수수 수염으로 차를 만들어 마시면 소변 보기가 수월해진다?

옥수수 수염에는 이뇨작용을 유도하는 성분이 있어 이뇨제와 마찬가지로의 작용을 한다. 그래서 소변량이 늘어나고 소변 보기가 수월해지는 느낌은 있지만 너무 많은 양을 섭취하게 되면 신체의 균형이 깨질 수 있으므로 과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정답 : O〉

## 오줌소태는 방광염과 같은 질환이다?

오줌소태라는 것은 방광의 자극 증상을 통틀어 말하는 것이다. 즉, 방광염과 같은 염증성 질환 이외에도 신경계의 이상이나 방광 감각의 이상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이므로 비뇨기과에서 기본적인 검사를 한 이후에 그 원인에 맞는 치료를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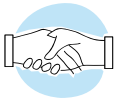
〈정답 : X〉

## 요실금은 항문 조이기 운동으로 치료될 수 있다?

가장 흔한 요실금인 복잡성 요실금은 발생 기전이 골반저근이라는 방광 및 요도를 지지하는 근육의 약화이다. 이 근육은 항문괄약근과 같이 연결되어 있어 항문괄약근의 운동, 곧 골반저근의 운동이 초래되어 근육의 강화가 이루어짐으로써 방광의 지지력이 보다 튼튼해질 수 있어 요실금의 치료가 될 수 있다. 또한, 절박성 요실금은 골반 저근의 운동에 의하여 배뇨에 관계되는 신경의 조정작용이 유도되어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다.

〈정답 : O〉





# 한 곳에 안주하지 않는 동수원남양병원



## 임상의학 발전과 건강한 지역사회 건설을 위하여

동수원남양병원은 모체인 동수원병원과의 효과적인 상호연계체계 구축으로 비교적 의료취약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화성시 남양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대도시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1999년 5월 지하 1층, 지상 5층, 110병상의 대명병원을 인수하여 화성시 남양동에서 새롭게 탄생한 병원이다.

내과, 소아과, 외과, 정형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응급실, 방사선실, 진단검사의학실, 물리치료실, 검진실을 갖추고 임상의학 발전과 건강한 지역사회 건설이라는 원대한 포부를 갖고 개원하였다.

초대 병원장인 변영훈 원장의 젊은 열정과 뛰어난 리더십이 현 백희규 원장에게 전해지고 여기에 환자를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정신이 더해져 병원 곳곳에서는 전 직원의 환자사랑에 대한 실천의지를 엿볼 수 있다. 병원 환경을 개선하여 환자에게 편안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하는 것과 환자들이 궁금하게 생각했던 여러 가지 질병 관련 의학정보나 의학상식 등을 쉽게 풀이하여 게시하는 것 등은 환자는 내 가족이라는 생각이 만들어진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 신속하고 효과적인 응급의료시스템의학 발전과

동수원남양병원은 위급한 상황의 환자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응급의료시스템이 잘 갖추어진 병원이다. 각종 진단에 필요한

C.T, 초음파, 유방촬영기, 위·대장조영촬영기, 심폐소생술기, 진단검사기기, 응급수술을 위한 2개소의 수술실을 갖추고 24시간 지역응급의료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각종 사고 및 씨랜드 화재와 같은 대형화재로 인한 많은 인명사고에서 응급대처 능력을 인정받기도 했다. 이는 모병원인 동수원병원, 그리고 2003년 5월 협력 체결된 아주대학교병원과의 응급의료 전달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는 덕분이기도 하다.

또한 동수원남양병원은 각종 자격증에 필요한 운전검진, 건강검진, 국민의료보험에서 실시하는 무료, 유료 검진 및 암검진 실시 등의 검진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 신설된 350대의 차량 수용이 가능한 주차장과 현대적 시설로 갖추진 화성지역 최대 규모의 장례식장은 이 병원의 자랑이기도 하다. 특히 장례식장은 650평의 대지, 5개실의 분양실과 접객실, 대형 휴게실로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장례식을 치를 수 있도록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한 곳에 안주하지 않는 동수원남양병원이 되고자

동수원남양병원은 지역 주민을 위한 일에도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지역 주민을 위한 정기적인 무료 한방진료는 물론, 외국인 노동자 무료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고아원 후원 및 수재민 의료지원 등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또한 지역의 노인들을 위하여 110병상 중 50병상을 요양병상으로 전환, 그에 맞는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병원 개원일에 맞춰 매년 경로잔치를 실시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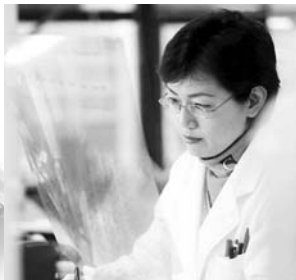
동수원남양병원은 한 곳에 안주하지 않는 병원이 될 것이다. 지속적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나아가 동수원병원 및 아주대학교병원과 의학정보 및 의료기술 교류 등 서로간의 진료네트워크를 통한 협력을 바탕으로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지역사회 만들기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병원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김 영 배 팀장 / QI팀

최고의 의학명문 아주대학교의료원을 여러분이 키웁니다.  
아주대학교의료원 발전을 위한 자리에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십시오.

## 아주대학교의료원 교육·연구동 건축기금 조성

창의력이 있는 의과대학, 질병 연구와 치료의 흐름을 선도하고자 하는 저희 아주대학교의료원의 의지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 주실 여러분의 도움을 기다립니다.  
신설되는 교육·연구동에는 첨단 연구시설과 인력이 집중되면서 정보 교류와 협력, 시설의 공유를 통해 역량을 극대화하여 아주대학교의료원 연구의 중심체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발전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여러분의 관심과 후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 아주대학교의료원 교육·연구동

### ▶▶총계

#### ■ 우리 모두 후원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국내 의학발전과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원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후원자가 되어 주십시오. 저희를 믿고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의 뜻을 받들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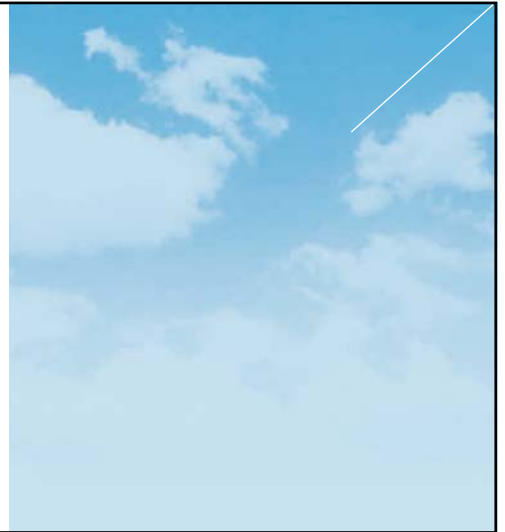
#### ■ 다양한 형태로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현금, 주식, 기타 자산이나 의료기기, 부동산, 귀중품 등 어떠한 형태로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관심도 좋은 후원이 됩니다.

#### ■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도와주십시오.

- 지로납입      전화신청    031-219-4000
- 자동이체      거래은행    신청 후 후원회에 전화통보
- 무통장 입금    거래은행    예금주 : 아주대학교의료원
  - 제일은행    692-20-164295
  - 제일은행    692-20-166907
  - 한미은행    542-00896-248
  - 농    협      116-01-060243
  - 국민은행    593501-01-082841
  - 우리은행    177-089499-13-102

저희를 믿고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건축기금 모금 현황

구 분	회원수	약정액	기부총액
월 간	1명	12,500,000원	15,874,000원
누 계	355	1,865,975,531원	1,827,535,331원

성 명	약정액	의료원과 관계
-----	-----	---------

### <의료원 납입분>

한기완	5,000,000	前 시설관리팀장
아라코(장례식장)	2,000,000	입점업체
이태리 안경 윤태정 대표	1,000,000	신협마트 입점업체
김완기 교수	4,500,000	아주대 의대 의과학연구소
교직원 분납분	7,874,000	(교직원 급여 공제)

2004.6.29~7.22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게시판

의료원, 에너지절약 캠페인 실시



의료원은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는 하절기를 맞아 지난 7월26일 월요일 오전 7시부터 1시간동안 에너지절약 캠페인을 벌였다.

이번 에너지절약 캠페인은 에너지 사용이 가장 많은 기간 동안 교직원들의 가정과 직장에서 과도한 냉방기기의 사용과 불필요한 전기기기의 사용을 억제하여 에너지 낭비를 줄이고, 에너지절약 의식을 확산하기 위해 실시된 것이다.

한편, 의료원 시설관리팀은 오는 9월 말까지 에너지절약 실천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셔틀버스 운행 노선 (운행간격 : 20분)

병원 → 아주대 입구 (우리은행) → 미소지움아파트 → 동수원사거리 삼성생명 → 동수원사거리 조흥은행 → 호텔캐슬 건너편 이화약국 → 아주대 삼거리 → 국립지리원(팔각정 갈비 옆) → 병원

클릭! 아주대학교병원 홈페이지



또 다른 즐거움이 있는 곳

www.ajoumc.or.kr

전문클리닉 진료시간표

진료과명 진료시간	의사명	진료일 진료시간	오 전	오 후	세부진공	비고
관절내시경 4310	강신영	5818		월	수부 및 상지외과	
	남등훈	5902		화	류마티스 관절염, 무릎	
	서창희	5818	화	월, 수, 금	류마티스 질환, 무릎, 통풍	
	민병현	5543		수	슬관절 및 견관절외과	
	전창훈	5542	화		척추외과	
	원애연	5542	월		인공관절외과	
	한경진	5543	목		수부 및 상지외과	
김현정	5543	수		발목 및 발의 질환		

진료과명 진료시간	의사명	진료일 진료시간	오 전	오 후	세부진공	비고
유전학 클리닉 5979	김현주	5903	화, 목	수	각종 유전질환, 유전성 암질환	
	김현주	5903	화, 목	수	유전상담	
통증 클리닉 5890	김찬	4331	월, 수, 금		상지신경통, 다관절, 수족냉증, 대상포진후 신경통	
	한경림	4331	해외연수중		경부·요부 디스크, 오십견, 두통, 교감신경위축증	
	일본진로	4332		월, 화, 목, 금	경부·요부 디스크, 오십견 등 암성통증 기타	
유방 클리닉 4744	김명옥	4743	목		유방질환, 난치성 소화기 질환	
	정용식	4743	월, 화	월* 목	유방질환	★
	윤태일	4743	수, 금	월*	유방질환, 내분비 질환	
					*은 말로불 수술만 시행	
허수 및 발달장애 클리닉 5814	신윤미	5814		화	소아·청소년 정신과, 발달장애	
	조선미	5814	금, 토(격주)	수, 금	심리검사 프로그램	

진료과명	의사명	진료일 진료시간	오 전	오 후	비고
소화기 내과	간암클리닉 5976	조성원	5969	월, 화, 목	
		정재연	5963	금	화, 수, 목
		왕희정	5753	금	화, 금
		원재환	5863	해외연수중	
순환기 내과	심부전 및 관막질환 클리닉 5717	신준환	5973		화
호흡기 내과	여행자 예방접종 클리닉 4730	최영화	4730	월, 목	수
알레르기 클리닉 내과	벌독(곤충독) 알레르기클리닉 5902	박해심	5905	월, 금	
		남동훈	5905	화	목, 금
정신과	공항장애 인지행동 치료클리닉 5814	임기영	5810	화	목(19:00~21:00)
피부과	안면색소클리닉 5917	강희영	5914	수, 금	월, 수(레이저치료) 목
흉부외과	하지정맥류클리닉 5752	최호	5752	화, 목	화
신경외과	뇌졸중 혈관내 수술클리닉 5664	신용삼 김선용	5664 5858	해외연수중 수	
성형외과	구순구개열클리닉 5614	박명철	5611	수	
		안면윤곽미용클리닉 5614	정재호	5612	화, 목
산부인과	불임 및 습관성 유산클리닉 5597	황경주 김미란	5597 5597	월, 수, 금 화, 목	월, 금 화, 수, 목
안과	콘택트렌즈클리닉 5673	양홍석	5671		화, 금
		움직이는 의안클리닉 5673	문상호	5670	
비뇨기과	야뇨증클리닉 5585	최종보	5587	화, 금	수
		김영수	5586	수	금
가정의학과	비만클리닉 5959	김병택	5957	월, 수, 목	금
치과	인공치아 이식클리닉 5869	황병남	5869	화, 목	목
		고석민	5869	월, 금	화
	턱관절장애클리닉 5869	황병남	5957	금	월

# 아주대학교병원 외래진료 시간표

(2004년 8월1일 현재)

아주대학교병원은 토요일에도 특진 의사가 진료를 합니다

진료과 의사명	진료 일	오 전	오 후	세부진공	비고
소화기내과	조성원 5969	월, 화, 목		간질환	
	김진홍 5962	화, 금	수	위장관치료내시경, 췌·담도질환	
	함기백 5963	월, 목	화	위장질환	
	이광재 5963	화, 금	목	위장질환, 위장관 기능장애	
	유병무 5962	월, 수	금	췌·담도질환, 치료내시경	
	이기명 5963	수	월, 수	위장 질환, 대장질환	
	정재연 5962	금	화, 목	간질환	
	심성준	목		소화기 질환	
	김종수		월	소화기 질환	
	최준혁		금	소화기 질환	
순환기내과	탁승재 5973	화, 수	수	관상동맥질환(협심증, 심근경색증), 심장혈관 중재시술	
	신준환 5975	월, 목	화	관막질환, 심근경색, 협심증, 심부전, 고혈압	
	황고승	목	월, 목	부경맥, 심전기생리검사, 전국도자절제술, 인공심박동기	
	윤영호 5975	화	목, 금	관상동맥질환(협심증, 심근경색증), 심장혈관 중재시술	
	최소연 5975	금	화, 수	관상동맥질환(협심증, 심근경색증), 심장혈관 중재시술	
	유상용	월		심장혈관질환	
	안성균		금	심장혈관질환	
	최태영 5975	금	월	고혈압, 심장질환	
	최병주 5973	화	수	고혈압, 심장질환	
	최정현 5973	수		고혈압, 심장질환	
호흡기내과	황성철 5967	월, 화, 수, 목, 금	목	폐암, 감염성폐질환, 폐결핵, 만성기침	
	박광주 5967	해외연수중		만성폐질환, 폐암, 폐결핵, 중환자치료학	
	최영화 4731	월, 목	수	발열, 감염질환, 에이즈, 예방접종, 결핵	
	신승수 5968	화, 수	월, 금	만성폐질환, 중환자치료, 폐암, 폐결핵	
	오윤정 5968	월, 수	화, 목	호흡기질환	★
	박주현	목, 금	월, 화	만성폐질환, 간질환, 폐질환, 중환자치료, 폐결핵	
내분비내과	이관우	월, 수, 금	목	당뇨병, 내분비대사질환	
	정윤석 5961	화, 목	월, 금	골다공증, 뇌하수체질환	
	김대중 5955	월, 화, 목	수	당뇨병, 비만, 대사증후군, 갑상선질환	
	일반진료 5961	수, 금	화	내분비대사질환(재진만 진료)	
신장내과	김홍수 4741	월, 목, 수, 금		만성신부전증, 투석치료, 사구체신염	
	신규태 5971	화, 목, 수, 금	월	신장이식, 고혈압, 사구체신염	
	정현준		화, 목	신장질환	
	송영수		수, 금	신장질환	
종양혈액내과	김호철 5992	수, 금		림프종, 골수종, 백혈병, 혈액질환, 조혈모세포이식	
	임호영 5991	월, 화, 목		식도·위장·대장·직장암, 각종 고형암	
	최진혁 5994	수, 금	월	두경부·식도·폐암, 유방암, 각종 고형암	
	박준성 5992	월, 화	화, 목	혈액질환, 종양	
	정주호 5990	목	월, 수, 금	혈액학	
임상진료	일반진료		화, 수, 목, 금	각종 암 및 혈액질환	★
	박해심 5905	수, 목	수	천식, 알레르기질환	
	남동호 5905	화	화, 목, 금	천식, 알레르기질환, 류마티스, 루푸스, 통풍	
	서창희 5818	화	월, 수, 목, 금	류마티스 질환, 류마티스, 통풍	
	김상하 5905	목	화, 금	기관지천식, 알레르기질환	
일반진료		월	천식, 알레르기질환		
내과일반	5970	월 ~ 금	월 ~ 금		*는 관절염센터 진료

진료과 의사명	진료 일	오 전	오 후	세부진공	비고	
소아과	홍창호 5620		수, 금	청소년 질환, 성장과 발달		
	김성환 5616	화, 목, 금	수	신경계질환, 간질, 발달지체		
	배기수 5623	월, 화, 목	목	신장질환		
	이수영 5623	수, 목	수, 화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박문성 5617	월, 수	수, 금	미술사, 신생아 질환		
	정조원 5621	수, 금	월	심장질환		
	황진순 5619	월	수, 목, 금	소아내분비 및 유전대사 질환		
	박준은	화, 목	수, 목	소아혈액·종양질환		
	서효정	월, 화	월, 금	소아일반질환, 알레르기·내분비질환		
	유재은	금	화	소아일반질환, 신생아질환		
신경과	김연희	수	목	소아일반질환, 신경계질환		
	일반진료	목	수			
	토요일은 특진1명, 일반1명의 의사가 주마다 고대로 진료를 합니다.					
	허균 5659	화, 수	월, 목	간질, 치매, 뇌혈관질환		
	주인수 5653	화, 목	월, 금	뇌졸중, 척수, 근육 및 말초신경질환		
	방오영 5657	월, 금	화, 수	뇌졸중, 치매		
	이필휴 5657	월, 목	화, 수	뇌졸중, 파킨슨병, 운동장애		
	일반진료 5657	수, 금	목, 금	신경계질환		
	정영기 5811	월, 수, 금	화	우울증, 스트레스 관련 장애		
	임기영 5810	화	수, 금	불안장애 및 스트레스 관련 장애		
정신과	이영문 5810	목, 금	월, 목	정신분열의 재활치료, 우울증		
	노재성 5811	수, 목	월, 금	우울증, 조울증 및 신경성 신체장애		
	신윤미 5812	월, 금	화, 수, 목, 금	학습장애,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틱, 자폐언어장애		
	일반진료	화	화, 목			
	이성낙 5912	수(예약), 목(예약)		베체트병, 화학박피술		
	이은소 5912	월, 화, 목	수(예약), 목	건선, 여드름, 베체트병(화·레이저치료)		
	김유찬 5914	월, 화, 목	화, 목(예약)	피부종양, 화학박피술(금·레이저치료)		
	김희영 5914	수, 금	월, 목(예약), 목	발반증, 무좀, 접촉피부염 (수·레이저치료) 색소질환		
	이지연		월, 목(예약), 금	색소성 질환 (목·레이저치료)		
	레이저치료		화, 수, 목, 금	예약에 의함		
외과	일반진료 5913	월 ~ 금	월 ~ 금			
	김명옥 5761	월, 수		난치성 소화기(위, 담도, 췌장)질환		
	조용관 5756	화	화, 수	식도, 위장질환		
	소의영 5756	수, 금		내분비 질환, 두경부 질환		
	홍정 5754	화, 목		소아외과 질환(기형, 흉양, 탈장, 배변기능장애)		
	영희정 5753	금	화, 금	간암, 간내결석, 간이식, 담도		
	서광욱 5753	월(재진)	월(초진), 목	대장·직장·항문 질환		
	오창권 5756	월, 금	월, 금	장기이식외과, 혈관외과		
	김우환 5756	화, 목		간·담도·췌장 질환		
	한상욱 5754	금	월, 금	위·십이지장 질환, 복강경위수술		
5758	정웅식	유방클리닉 진료		유방질환		
	이국종 5753	목		외상외과		
	윤태일	유방클리닉 진료		유방질환		
	김홍		수, 목	위십이지장 질환, 급성복통		
	정인호	수		담도계 질환, 복강경 수술		
안상익	김봉완		화, 금	간암 간내결석, 간이식, 담도, 급성복통		
	안상익		수	두경부질환, 유방질환		

외래진료 접수시간 \* 평 일 오전 8:00~오후 4:00  
\* 토요일 오전 8:00~오전 11:30

아주대학교병원  
주요 전화번호 안내

• 대표전화 : (031) 219-5114  
219-6114  
• F A X : (031) 216-6656  
• 전화예약 : (031) 219-5451

• 종합안내센터 : (031) 219-5500~1  
• 외국인안내 : (031) 219-5546  
• 응급의료센터 : (031) 219-6000  
• 건강증진센터 : (031) 219-5555


진료과명 입원/진료	의사명	진료실 전화번호	오 전	오 후	세부전공	비고	
흉부 외과	이철주	5749	금	화, 금	성인심장혈관외과	★	
	소동문	5750	월, 수	월	소아심장혈관외과		
	최 호	5750	화	화, 목	폐 · 식도의과, 다한증, 하지정맥류		
	이상수			월, 수	폐 · 식도의과		
5752	일반진료	5750	목		★		
정형외과	강신영	5544		월* , 목	수부 및 상지의상, 기형, 미세수술외과		
	민병현	5543	월, 금(초진)	수*	슬관절 및 견관절외과		
	전창훈	5542	화* , 목, 		척추외과, 측만증, 최소침습수술		
	원예연	5542	월, 수	목	인공관절외과		
	한경진	5543	목*	월, 화	수부 및 상지의과, 미세수술외과, 사지 혈관신경외과		
	김현정	5542	수*	화, 목	발목 및 발의 질환		
	전영수		월, 금	금	골연부조직 종양 및 외상학		
	조재호			월, 수, 금	소아정형(변형)교정, 키늘리는 수술, 외상		
	정남수			금	정형외과 질환, 외상학(탈구 및 골절)	★	
	박응석		목		정형외과 질환, 외상학(탈구 및 골절)	★	
노정호		수		정형외과 질환, 외상학(탈구 및 골절)	★		
신경외과	조경기	5661	월, 목	목	뇌종양, 척추질환		
	조기홍	5662	수	월, 수	척추질환, 신경통증치료	★	
	윤수한	5662	화, 금	화	소아신경외과, 뇌종양		
	안영환	5662	화, 금	금	안면경련증, 삼차신경통, 방사선수술, 뇌종양		
	신용삼	5663	해외연수중		뇌혈관 질환, 뇌졸중, 중재적 치료		
	김세혁		수	수, 금	뇌종양, 뇌혈관 질환, 외상		
5664	심숙영		월	목	뇌종양, 외상, 일반 신경외과		
	허지순	5663	목	월	척추질환, 외상, 일반 신경외과	★	
	성형외과	박명철	5611	월, 수, 금		유방성형, 소아기형, 미용성형	
		정재호	5612	화, 목	금	악안면부성형, 미용성형, 악안면부기형	
		박동하		토	월, 목	수부성형, 미용성형	
		정수우			화, 수	미용성형, 체형성형(비만)	
5614	일반진료	월-금	월-금				
산부인과	오기석	5595	화, 목, 금		부인과 질환		
	유희석	5594	화, 목	월	부인암		
	김행수	5593	해외연수중		고위험산모, 초음파 (특수진료·예약에 한함)		
	장기홍	5594	월, 수	화, 금	부인암, 복강경		
	양정인	5593	  	월, 수, 목	고위험산모, 초음파 (특수진료·예약에 한함)		
	황경주	5643	월, 수, 금	월, 금	불임, 습관성 유산, 복강경		
	이정필	5595	월, 금	수, 목	부인암, 비뇨부인과, 복강경		
	김미련	5643	화, 목	화, 수, 목	불임, 복강경, 미혼여성클리닉		
	5597	일반진료	월-금	월, 수, 목, 금			
	안과	유호민	5669	월, 수, 금	 (예약),  (예약)	망막, 유리체, 백내장	★
안재홍		5672	월, 화	금	녹내장, 백내장, 굴절수술	★	
문상호		5670	금	화, 목	안성형, 백내장		
장윤희		5672	목	월, 목	사시, 소아안과		
양홍석				화, 금	각막, 백내장, 외안부, 렌즈클리닉	★	
문찬식			화, 수(레이저 치료)	수, 금(레이저 치료)	망막, 백내장, 유리체	★	
5673		일반진료	월-금	월-금		★	
이비후과	박기현	5742	월, 금		난청, 어지럼증, 귀종양 및 두개저외과		
	문성균	5742	해외연수중			★	
	정연훈	5742	화(신경클리닉), 목(아지협증)	금	난청, 어지럼증, 인공와우, 귀종양, 보청기	★	
	김철호	5746	월, 목	수업생클리닉	두경부 종양, 음성장애, 기관 · 식도 질환		
	김현준	5746	수, 금	화	비염, 부비동염, 후각장애		
	오정훈		수	월, 목	비염, 부비동염		
	5747	김병철		화	비염, 부비동염		
	이준호			월, 화, 목	난청, 중이질환		
일반진료		월-금	월-금				

진료과명 입원/진료	의사명	진료실 전화번호	오 전	오 후	세부전공	비고	
비뇨기과	김영수	5586	수	금	소아비뇨, 여성 방광염		
	김세중	5587	월, 화	목	비뇨기 종양(암)		
	안현수	5588	목	월, 화	요로결석, 불임		
	최종보	5587	화, 금	수	배뇨장애, 요실금, 남성과학(성기능장애)		
	오동근		수, 목	월	남성과학, 요로결석, 요실금		
	5585	강지훈		월	화, 금	비뇨기 종양(암)	
	일반진료		금	수, 목			
재활 의학 과	이일영	5795	월, 수, 금		척추손상		
	나은우	5796	수, 목	화, 금	뇌졸중, 뇌손상, 절단자 재활		
	과민영	6440	화	월, 수, 금	소아재활, 학습장애, 언어발달장애		
	5802	윤승현		월, 금	화, 수, 목	노인재활, 근골격계 재활, 스포츠손상재활	★
	일반진료		화	목			
진단 사 과	김선웅	5854	월, 화, 목		뇌혈관질환 중재적 치료		
	원재환	5863	해외연수중		혈액생화학, 생화학, 핵의학, 방사선영상의학		
	5823	일반진료	5145	수, 금	화, 목		
방사선 종양 학과	전미선	5884	월-금	월-금	종 양(부인암, 유방암, 소화기암)		
	오영택	5884	월-금	월-금	종 양(두경부, 폐종양, 비뇨기암)		
	5884	강승희	5884	월-금	월-금	종 양(뇌종양, 육종, 정위방사선치료)	
핵의 학과	윤선남	5947	월-금	월-금	핵의학(진단, 동위원소치료)		
	5939	윤준기	5947	월-금	월-금	핵의학(진단, 동위원소치료)	
신원외과	이경종	5645		화	직업성 질환		
	5644	박재범		목	직업성 질환, 직업성인공관절		
	5606	일반진료	5644	월-금	직업성 질환		
가정 의학 과	김광민	5958	월, 수, 금	화	만성폐로, 노화관리, 남성갱년기		
	박새별	5957	화, 금	월, 수	여성갱년기, 스트레스, 가족상담		
	5959	김범택		월, 수, 목	금	비만, 골다공증	
	안병환		화	목	비만, 갱년기, 골다공증		
	5959	정재훈		목	월	갱년기, 골다공증	
	일반진료	4808	월-금	월-금			
치과	황병남	5869	화* , 목* , 금	월, 화, 목*	인공치아이식, 턱관절장애		
	5869	이정근	월, 화* , 수, 목*	화* , 수* , 목*	악안면기형, 악안면외상, 인공치아이식		
	5869	고석민	월* , 화, 금*	화* , 수, 금	인공치아보철, 틀니		
	5869	유성근	수* , 목*	월* , 수* , 목* , 금*	치열교정, 악안면기형, 주걱턱		
	5869	일반진료	월* , 화* , 수, 목* , 금, 토	월, 화, 수* , 목, 금*	화, 목 오후는 초진 가능		

진료과명 입원/진료	의사명	진료실 전화번호	오 전	오 후	야 간	세부전공	비고	
응급 의학 과	조준필	6005	월, 수		수	외상외과, 응급질환		
	6011	장윤석	6005	화	월, 목	화	독극물중독, 응급질환	
	6005	이국중	6005	금	수	금	외상외과, 외과계 응급질환	
	6005	민영기	6005	목	화, 금	월	응급의학, 중환자의학	

토요일 특진운영 안내

토요일 외래진료는 주마다 특진 의사가 바뀔 수 있으나  
세부전공과 관련없이 모든 질환을 진료합니다.

1. 진료시간표는 각 과별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 은 특수진료입니다.
3. \* 는 세부전공만 진료합니다.
4.  은 추가비용징수 선택진료의사입니다.
5. ★ 는 진료시간이 변경된 의사입니다.
6. 전화문의는 031+219+ 해당 진료과의 번호를 누르십시오.